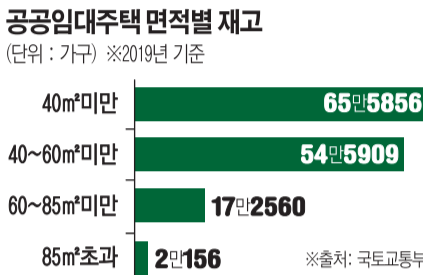


'3%'를 완화...與, 공정경제 3법 수정 **5**

시노라 사장 "르노삼성, 한국 남고 싶어" **12**

소형 줄이며 중형임대 주거약자 소외 '딜레마'

중산층 부담 줄이려 지원 분산
'빚더미' LH 등 재원 떠안게 돼
공급부족엔 저소득층 혜택 줄어
실패한 '시프트' 전철 밟을 가능성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문호를 중산층에
까지 넓힐 방침이다. 중산층의 주거비 부
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에서다. 시장에서
는 사회적 약자에게 갈 주거복지 지원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
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
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힌 지 석 달
만이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공공
임대주택을 전용면적 85㎡형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중위소득 130%(4인 가족
기준 월 634만 원)인 입주자 소득 상한선
도 상당히 유력하다. 이수욱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중산층을 위한 양
질의 공공임대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면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비 절감에 도
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공공임대가 확대된다
면 그 부담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 공기업이 떠안을 공산이 크다.
LH는 지금도 126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
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용자를 받을
순 있지만 2018년 41조 원이던 기금 여유
자금 규모도 올 7월엔 34조 원으로 20%
쪼그라들었다.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재원이 분산되면
저소득층 주거 복지에 쓰일 돈이 부족해질
수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공공임대주택은 토지, 자금 등 자원 소

가 많은 사업"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임
대주택 수요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중산층에까지 공급
할 시기가 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의 비주택(판잣집·비닐하우스
등 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 거주자
는 96만 명이 넘는다. 현재 임대기간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약 117만 가구
인 점을 고려하면 주거 약자를 챙기기에 도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과거 서울시에서 시프트(shift)란 이름
으로 중형 임대주택을 공급했을 때도 비수
한 문제가 생겼다. 해마다 운영 손실이 약
2000억 원씩 발생했다. 적자를 못 버틴 서
울시는 중형 시프트 공급을 중단하고 취약
층 지원에 집중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중
산층 임대주택이 이 전철을 밟을 가능성
을 우려한다.

재원 문제로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
되지 못하면 임대주택을 두고 중산층과 주거
약자가 제로섬 게임을 벌일 수 있다. 박호주
참여연대 간사는 "과거에도 청년·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저소득층 임
대 물량이 감소했다"며 "충분한 임대주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급 대상만 확대하
면 저소득층이 불리해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가운데 청년·신혼부부는 전년보다 37%
(5만3000가구→7만2500가구) 늘었지만
저소득층은 30%(8만1000가구→5만
7000가구) 줄었다. 박종화 기자 pbell@



하늘 나는 '드론 택시' 1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도시, 하늘을 열다'를 주제로 열린 도심항공교통 서울실증 행사에서 2인승 드론 택시 '이항216'이 하늘을 날고 있다. 국내에서 드론 택시가 하늘을 난 것은 처음이다. ▶관련기사 2면 신태현 기자 holjjak@

금감원 '펀드 불판 의혹' 기업銀 종합검사

추가 현장검사...내달 초까지 본검사
글로벌 채권 투자금 695억 환매 중단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기업은행 디
스커버리펀드 논란에 대해 종합검사에 착수
했다.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US
핀테크글로벌(선순위)채권 펀드는 국내 운
용사인 디스커버리운용이 설계한 상품으로
기업은행 등 판매사들이 모집한 투자금을
미국 운용사 DLI가 운용하는 방식이었다.
환매 중단된 글로벌 채권 투자금은 695억
원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10면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기
업은행 종합검사를 앞두고 사전검사를 진
행하고 있다. 본 검사는 12월 초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검사 인력은 특수은행검사
국 직원 20명 내외로 알려졌다. 코로나19

가 진정돼 사전검사는 서면으로 대체하진
않기로 했다. 올해 말로 예정된 '은행권
부실펀드 제재심'을 앞두고 디스커버리펀
드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한 추가 현장검
사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리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함께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
한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
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금융과 기업은행
검사로 올해 은행권 종합검사는 마무리될
것"이라며 "6월 펀드부실 검사를 진행했지
만, 종합검사는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차
원"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금감원이 재차 검사에 나선
이유에 대해 디스커버리 불완전판매의 추
가적 확인점을 살펴보려는 것이냐는 분
석이 나온다. 내달 은행권 제재심을 앞두

고 불판 의혹을 매듭짓기 위한 검사라는
의미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대책
위)는 디스커버리펀드는 사기 판매이므로
기업은행은 이를 인정하고 계약을 무효화
해 원금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
는 "금감위는 자산운용사와 기업은행에 대
한 검사 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촉구했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정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에서 이를 위한 자료를 깊게 들여다볼 것
으로 보인다.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는 지난해 국내 운
용사 디스커버리운용이 기획 투자한 'US
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가 환매 중단되면
서 발생했다. 이 펀드는 기업은행과 IBK
투자증권 등을 통해 판매됐다. 피해 규모는
1800억 원에 달한다. 서지연 기자 sjy@

삼성전자, 업계 최초 '스마트SSD' 공개

'플래시 메모리 서밋 2020' 참가
SK하이닉스도 신제품 선보여

삼성전자가 자일링스와의 협업으로 업
계 최초의 스마트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사진) 제품을 공개했다. 삼성은
최근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는 고사양 기업
용 SSD 시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할 전략이
다. 반도체를 결합한 SSD는 기존 하드 디
스크 드라이브(HDD)를 대체하는 차세대
저장장치다.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10
일 개막해 12일까지 열리는 '플래시 메모
리 서밋 2020' 온라인 행사에 참가해
'삼성 스마트SSD 컴퓨터이셔
널 스토리지 드라이브'를
발표했다. 스마트SSD CSD
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비디오
처리, 인공지능 레이어, 복잡한 검색



및 가상화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데
이터 처리 성능을 10배 이상 높인다. 자일
링스 FPGA(프로그래머블반도체)로 구
동되며, 업계 최초의 적응형 컴퓨팅 스토
리지 플랫폼이다. 삼성전자의 스마트SSD
는 내년 1월 정식 출시된다.

최근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을 인수한
SK하이닉스는 가상 전시관을 통해 개발
중인 176단 기반의 PCIe 4.0 인터페이스
cSSD(소비자용 SSD)를 공개했다. 176
단은 마이크론이 전날 '5세대 3D 낸드'라
명명하며 고객사에 출하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기술이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낸드플래시 시장이
2024년까지 연평균 13.2% 성장할 것
으로 보고 있다. 2024년 낸드
플래시 시장 규모는 855억달
러로 올해 전망치(592억 달
러)보다 50% 가까이 늘어날 전
망이다. 송영록 기자 syr@

옵티머스 투자금 5146억...최악 댄 건설 돈 401억

펀드 회수율 7.8~15.2%에 불과
2200억 횡령 등으로 실사 불가

50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회수율이 최악
의 경우 10%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실사 결과가 나왔다. ▶관련기사 16면

금융감독원은 11일 삼일회계법인에 별
인 옵티머스 펀드 회계 실사 보고서를 공개
하고 전체 펀드 규모 대비 예상 회수율이
최소 7.8%(401억 원)에서 최대 15.2%
(783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옵티머스의 총 46개 펀
드(설정금액 5146억 원)에서 나간 자금
중 최종 확인된 63개 투자처를 대상으로
실사를 벌였다. 63개 투자처에 투입된 펀
드자금은 3515억 원이다. 투자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
업 1277억 원 △주식 1370억 원 △채권
724억 원 △기타 145억 원 등이다.

투자처가 확인된 3515억 원 중 회수가
의문시되는 C등급은 2927억 원
(83.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액 회
수가 가능한 A등급과 일부 회수 가능한 B
등급은 각각 45억 원, 543억 원이었다. 삼
일회계법인은 63개 투자처에 대한 채권보
전조치 가능성, 담보권 확보 여부, 사업 진
행 및 회수 리스크 분석 등을 통해 예상 회
수율을 추정했다.

46개 옵티머스펀드에 투입된 돈은 펀드
설정금액 5146억 원에다 이자와 외부 유
입 자금을 합쳐 총 5745억 원으로 집계됐
다.

최종 투자처에 투입된 3515억 원을 제
외한 2200억 원가량은 횡령이나 돌려막기

등으로 실사가 불가능했다고 삼일회계법
인은 설명했다. 회수율을 파악할 수 없는
사라진 돈이라는 얘기가.

금융감독원은 "실사 결과를 반영해 기준
가격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준가
산정 관련 자율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며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해 펀드 이관 방안
등을 논의하고,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
도록 후속 조치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 관
련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은 265건이
다. 이인아 기자 ijh@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2년...
이대론 안된다 **6** ▶4면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6** ▶8면

드론택시, 여의도 상공 누볐다... 하늘길 출퇴근 현실로

국토부·서울시, 도심 첫 실증행사
국내외 업체 참여 기체·모형 전시
2025년 드론배송 등 상용화 추진



한화시스템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미국 오버에어와 공동 개발 중인 개인비행체(PAV) '버터플라이'의 실물 모형(목업·mock-up)을 국내외 처음으로 선보였다. 한화시스템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한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시연 행사인 '도심, 하늘을 열다'에 업계 대표로 참가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드론택시가 도심 상공을 날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K드론시스템을 활용해 드론배송·택시 등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기술 현황에 대한 실증행사를 항공안전기술원 주관으로 공동 개최했다.
UAM은 도심지 내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전기동력 비행체를 활용, 도시권역(30~50km) 교통 수요를 정체 없이 수용 가능한 차세대 3차원 교통서비스를 말한다.

대도시권 지상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하늘길 출퇴근을 가능케 할 차세대 모빌리티로 주목받고 있다.
또 K드론시스템은 다수 드론의 안전한 항을 지원하는 관제시스템으로, 드론배송 및 드론택시를 위한 핵심 연구개발(R&D) 과제다.
국토부는 올해 K드론시스템을 인천·영월에서 종합 실증을 했으며, 이날 국내 최초로 도심 내에서 종합 실증했다. 특히 전

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 기체의 도심 비행도 국내에서 처음 이뤄졌다.
국토부는 서울의 중심부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장이 위치한 여의도에서 비행한다는 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이 자체 기술로 개발 중인 기체의 비행 장면이 원격으로 중계됐다. 아울러 올해 6월 발족한 민관협업체 UAM 팀코리아에 참여하는 현대차·한화시스템도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인 기체모형을 각각 행사장 내에 전시했다.
해외에서는 중국 이항사가 개발한 2인승급 기체(EH216)가 여의도와 한강 상공 비행실증에 참가했고, 미국 리프트 에어크래프트사의 1인승급 기체(핵사)는 상용개발 기체를 이착륙장에 전시하고 레저·응급구조 등 eVTOL 기술의 다양한 활용 가능

성을 선보였다.
UAM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기체 개발과 함께 정부에서도 기체안전성 인증, 운항·관제 등에 관한 기술개발 및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 항공산업과 달리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주도권·기술표준 등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6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2025년 드론택시 최초 상용화 목표를 포함한 한국형 K-UAM 로드맵을 확정·발표했으며 이번 K드론시스템 및 드론택시 실증행사는 로드맵의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는 상용서비스 도입을 위한 실증 확대, 버티포트(eVTOL 이착륙장) 기준 마련, 종사자 자격 연구, UAM용 관제시스템 R&D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정세균 “이르면 내달 초... 두 차례 소폭 개각”

檢 ‘월성1호기’ 산업부 수사에
“적극행정에 찬물을 끼얹는 격”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을 마친 뒤 미국인 전사자 묘역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개각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이르면 2021년 예산안이 마무리되는 내달 초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취임 300일(11월 8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개각은 작게 두 차례 나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각 시점이 연말 연초인가’라는 질문에 “그보다 빠를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짜고 있는 만큼 예산안이 마무리되는 12월 초 개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일부 장관 교체 등을 고려해 두 차례 소폭 개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 총리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냉정’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속’을 주문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좀 지속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며 “가족이나 측근들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수사를 받고 있으니 좀 지속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지속)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에 대한 “추 장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가 검찰개혁으로 이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점은 (높이) 평가한다”며 다만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젊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아울러 월성1호기 관련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수사에 대한 “검찰의 개입은 공직사회가 최선을 다해 적극행정을 펼치려고 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지금 공직사회가 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펼친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런 점을 적극 공직자들에게 말했고 권장을 해서 상까지 주고 있다”며 “감사원장과 단독으로 만나서 적극행정을 함께 권장하기로 합의까지 해놓은 상태”라고도 설명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윤석열, 대권 선호도 첫 ‘1위’

지도도 24.7%... 정치권 “여권과 대립 반사효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로 올라서며 판도를 뒤집었다.
윤 총장 역시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서 정치권 내에서는 “청와대·여당과의 대립각에 힘입은 일시적 반사효과”라는 분석과 “야권 인물난 속에서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인물”이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검찰 내부에서도 현직 검찰총장의 운명과 관련된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발표한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도도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총장이 24.7%로 1위에 올라섰다. 그동안 타 여론조사에서 1위와 2위를 다투던 이

대표와 이 지사는 각각 22.2%와 18.4%로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윤 총장의 급부상에 대해 정치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윤 총장의 개인적 노력과 평가보다는 여당과 청와대와의 갈등에 힘입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야권에 이렇다 할 만한 대권 후보가 없다는 점도 일시적으로 보수 지지층을 흔드는 데 한몫했다.
오히려 야권의 인물난이 윤 총장의 입지를 더욱 굳혀 대권 판도까지 뒤 흔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게다가 치솟는 지지율 상승폭이 뚜렷해 내년까지 윤 총장이 유일한 인물일 경우 결과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박준상 기자 jooon@

현대백화점 창사 49주년

KOREA Sale FESTA

대한민국 쇼핑주간

11.01 — 11.15

삼성전자 3대 인기 가전 최대 40% OFF 11.1~15전점
65인치 QLED 4K TV / 무풍 갤러리 멀티형 에어컨
비스포크 김치플러스(480L)
(한정수량)

힘내라 대한민국, 패션&라이프 종합 대전
국내 인기 패션 브랜드 참여 「코리아 패션 마켓」 - 신촌점, 김포아울렛 외
우수 중소기업 상품전 「득템마켓」 - 판교점, 목동점 외

FOOD FESTA
매일 인기 상품 50% 할인
외식, 장보기 지원금 H.Point 최대 1만 5천 포인트 증정

〈2015~2019년 기준〉

중산층 챙긴 시프트, 취약계층 놓치고 연 2000억 손실

**서울시 장기전세 '공공성' 실패
과거 소득 상위 20% 입주 허용
금수저 논란에 재정건전성 악화
"소득 분위별 공급을 미리 정해야
중산층용 아닌 다양한 계층 공존"**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복지 제도로 정착하려면 갈 길이 멀다. 기존 사업과의 조화는 물론 재무적 안정성까지 담보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프트가 갔던 '실패의 길'을 되밟을 공산이 크다.

서울시는 2005년 임대주택 고급화를 선언했다.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하는 대신 전용 49㎡ 이상 중형 주택 위주로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슬림화(化)를 막고 중산층이나 부유층까지 입주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게 명분이었다.

소형 임대주택 건설 중단은 철화됐지만 중형 임대주택은 장기전세 주택, 이른바 '시프트'란 이름으로 건설됐다. 민간 전세 시세보다 20% 이상 싼값에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해까지 시프트 3만781가구를 공급했는데 중형이라 할 수 있는 전용 84㎡형과 114㎡형은 각각 8016가구(26.0%), 2450가구(8.0%)를 임대했다.

◇공공성 놓친 시프트 = 15년이 지난 지금 시프트에 관해선 '실패작'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SH공사는 2016년부터 전용 85㎡가 넘는 중형 임대주택 공급을 사실상 중단했다. 같은 장기 전세라도 소형 임대주택에만 집중하고 있다. 시프트가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지점은 공공성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공공 재원을 저소득층이나 주거 취약계층에 우선 써야 하는데 이를 중산층 등에 분산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시프트 건설 초기에는 소득 상한 기준이 느슨해 민간에서 전셋집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계층에까지 임대주택 문호를 열어준다는 지적도 받았다. 진미운 LH 토지주택연구원 주거안정연구센터장은 “과거 시프트는 소득 9분위(소득 상위 20%) 계층에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시프트로 SH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서 이 같은 비판은 더 힘을 얻었다. 2015~2019년 SH공사가 임대주택 사업에서 본 손실 1조8090억 원 가운데 1조102억 원(55.8%)이 시프트에서 발생했다. 이때문에 SH공사 내부에서도 일찍부터 시프트 주택을 매각하거나 분양 전환하고 주거약자 지원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소득·자산 기준 정교한 설계 필요 =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

언한다. 김 교수는 “중산층용이 아닌 중산층도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현재도 임대주택 예산이 경제 규모에 비해 적는데 기존에 취약계층용으로 계획했던 재원을 뺏는 식으로 지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 분위별로 공급 비율을 정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 센터장은 “소득 기준은 지금보다 완화하되 자산 기준은 엄격히 적용해 금수저 임대주택 논란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대주택 확대 부담을 지게 될 공기업 지원 방안도 과제다. 가뜰이나 공공주택 노후화로 유지·개수비 지출이 늘어나는데 건설 부담까지 늘어날 판이어서다. 재정건전

성을 중심으로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는 공기업으로선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박효주 참여연대 간사는 “공공임대주택 재정은 별도 회계로 편성해 공기업이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주택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도 “경제 규모에 비해 임대주택 건설 예산이 적다”며 “주택도시기금 용자가 아닌 출자를 통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임대인으로 공공성 갖추도록 포용해야 = 일부 전문가는 민간 임대 시장과의 조화도 주문했다. 공공임대주택만으로 중산층 주택 임대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 전·월세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과거 임대료나 임대 기간 등에서 정부 기준을 따르는 민간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줬던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이 주택 수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혜택과 그 대상을 많이 축소했다. 진 센터장은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지는 만큼 민간에서도 공공성을 갖춘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포용적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한 라인에 취약·중산층 '소셜믹스' 관전

**아파트 임대동 따돌림처럼
동·층 나눌수록 갈등 심화
노인·청년 세대믹스도 필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성공하기 위한 또 다른 관건은 입주 이후 단지 운영이다. 서로 다른 경제적·사회적 배경을 가진 계층이 한 단지에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사회적 혼합(소셜믹스)이 중요하다.

정부는 2005년 공공주택 단지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대형주택과 소형주택을 섞어 짓도록 소셜믹스를 의무화했다. 계층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서다. 실제 단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선 아직도 진동이 이어진다. 마주치는 일이 많아지면서 충돌이나 따돌림도 잦아졌다. 임대 여부나 크기에 따라 주택 동(棟)과 층을 분리했던 관행은 갈등을 더 심화시켰다. 임대 가구에 공용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차등화하는 일도 있었다.

임대주택이 중형으로 확대되면 이 같은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임대·분양 혼합 단지뿐 아니라 임대아파트 안에서도 입주 계층이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현재 임대 가구로만 이뤄진 노후 단지를 분양주택과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임대주택 등을 섞어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설계 혁신을 조언했다. 김 교수는 “주택 규모 등에 따라 동·호수를 배치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외관이나 위치만으로 주택 크기나 임대 여부 등을 알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스웨덴의 블록형 아파트를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같은 층 안에서도 평면이나 크기 등을 다양화해 여러 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경이 차이가 크면 갈등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며 “소셜믹스를 추구하되 경제적 수준 차이가 3~4분위 안에 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현실론을 펼쳤다.

유선중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공 단계에서부터 임대주택 배치나 설계에 대한 내용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내용이 잘 지켜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 풍조에 맞춰 노인 가구와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 가구를 균형 있게 배치하는 세대믹스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역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년까지 임대주택을 동이나 층으로 구별해 공급했으나 2018년 신촌희망타운을 시작으로 임대 여부에 상관없이 추천으로 동·호를 배정하고 있다. 박종화 기자 pbell@

매일 하는 체지방 관리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골드

현대인의 문제적인 식습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리미엄 녹차 정제



고열량, 고탄수화물, 고당류 식이 섭취로부터 체지방, 콜레스테롤 개선
메타그린 골드의 녹차추출물이 고열량, 고탄수화물 식단이 잦은 한국인의 체지방 관리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도와 대사 건강을 케어합니다



현대인의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으로부터 항산화, 뼈 건강 관리
비타민C, 녹차추출물이 함유되어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생성되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며, 비타민D가 함유되어 뼈 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메타그린 골드만의 프리미엄 정제 기술 적용
아모레퍼시픽만의 녹차 정제 기술을 높여, 정제를 만들고 코팅하는데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0가지(아산화티타늄,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를 함유하지 않았으며, 장용성 코팅 기술로 더욱 속 편하고 부드럽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 국내 농산물 유래 건강기능식품 중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 **녹색기술제품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100% 유기농
국산 녹차
오염물질 잔류 최소화 관리



제품상담
구매문의 |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바이탈뷰티

소상공인의 든든한 방패라더니... 곳곳에 구멍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2년...이대론 안된다 하

도입 2년을 맞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개편된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협약을 맺었다더라도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중기부의 정책 변환은 특별법 자체의 문제를 비롯해 곳곳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신청과정 복잡하고 적합업종 고시까지 최장 15개월 ‘보호공백’ 이미 진출한 대기업은 영업범위 제한 여겨도 ‘권고’ 조치 거쳐 지정심의위 회의내용 비공개... 심의과정도 투명하게 밝혀야

◇특별법 제정 시기부터 실효성 논란 = 특별법 제정 단계부터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법의 실효성 논란을 줄기차게 제기해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에서는 △중기 적합업종 종료 1년 전 신청 가능 △도입까지 최대 15개월 장기전 △대기업과의 분쟁이 버거워 대부분 상생협약으로 선회 △상생협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한을 놓치는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법령 처벌규정 미약 등의 다양한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없다. 특별법에 따르면 중기적합업종이 끝나기 1년 전에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해야 한다. 상생협약으로 선회했을 경우 그 1년 기한이 지나면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수 없다. 법에서 이를 다시 허가하는 예외규정이 없어 다시 상생협약만 되풀이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법규정의 모호한 부분도 개선해야 한다. 품목 지정 5년 뒤에는 법이 해제돼 대기업이 다시 해당 품목에 진출할 수 있다. 단순히 ‘하지 말아라’는 강제규정을 강화하기보다 소상공인을 위해 어떤 조치를 더 취해야 할지, 규제 기간 법을 어기거나 했을 경우 기한을 추가 연장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예외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기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진행하면서 회의록 등을 비공개 하는 것도 개선점으로 꼽힌다. 법률로는 기본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 회의록을 공개하게 돼 있지만, 예외조항을 뒤 심의위원들이 합의를 거쳐 비공개하기로 문턱을 다시 높여냈다. 비공개 명분은 기업 영업비밀 보호라지만 어떤 심의과정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정됐는지, 아니면 지정되지 못하고 반려됐는지를 다 뒤볼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특별법과 상생협약이 중소기업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은 “적합업종 품목이 기존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품목 등으로 한정되고, 이미 사업에 진출한 대기업 제재 방안이 미흡해 법안 실효성을 크게 반감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법 취지대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고,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려면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대기업 제재 방안이 미미한 점도 그렇고, 이미 사업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다는 점도 한계”라면서 “규제를 지키지 않을 때 현재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훈 기자 yes@
이다원 기자 leedw@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란

신청 대상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 업종과 보호 시급 업종
지정 절차	소상공인단체 신청 → 동반성장위원회 조사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지정 기간	5년 주기 재심의(중도 해제 가능)
위반 대기업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 이행할 때까지 위반 매출액의 5% 내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위한 적합업종 지정 일시

1979년	중기형 '중소기업 특화업종' 지정 도입
1982~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명칭 변경 후 시행
2010년	동반성장위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 제조업(2011년)을 시작으로 서비스업으로 확대되며 현재까지 74개 품목 지정
2018년 6월	장류·두부·김치·골판지상자 등 47개 품목 기한 만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2018년 12월 13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안 지켜도 그만?... ‘상생협약’도 제 기능 못해

심사과정이 복잡하고, 최장 15개월이 걸리는 등 진입장벽이 높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보다 ‘상생협약’으로 눈을 돌리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대기업이 대다수 업종에 진출해 있다 보니 ‘갑’의 위치인 대기업과 맞서기보다 상생협약으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소상공인 업체는 상생협약 외에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상생협약을 택한다고 토로한다. 반면 상생협약으로 선회한 품목에서도 대기업이 이를 잘 지키지 않아 소상공인의 피를 말리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상생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예외조항을 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품목 지정 단계로 가지 않고 대기업과 소상공인단체가 상생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업종 보호에 나서는 품목은 △메밀가루 △제과점△양념류 △햄버거빵 △어묵 △화초소매 △전통떡 △도시락 △막걸리 등 9종이다. 이 외에 오프셋인쇄 3종은 애초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

8월 상생협약 맺은 ‘도시락’ 코로나19·경기침체 이유로 대기업서 위탁 물량 못 받아 자율규제라 처벌규정도 없어

정했다가 현재 자율 상생협약 단계로 돌아섰다. 이들 품목은 앞서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했지만, 자율 합의로 대기업과 상생 협약을 체결하며 신청을 철회한 경우가 대다수다. 품목별 소상공인단체는 자율 상생으로 이익을 얻기 보다는 자신들이 기존에 받고 있던 차별적 대우를 해소하고, 대기업의 ‘횡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더 크다. 하지만 실제 상생협약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업체들의 입장이다. 제과점과 메밀가루, 양념류, 햄버거빵, 어묵, 화초소매, 전통떡, 도시락 등 8개 품목의 상생협약을 진행한 전통떡협회, 식품제조업협회, 한국화원협회, 한국제과협회, 한국제분협회 등은 상생협약의 효과에 대해 대부분 손사래를 쳤다. 도시락의 경우 8월 상생협약을 맺었지만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실

제 대기업으로부터 반기로 한 위탁생산 공급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시락을 공급하는 급식업체 안팎에서는 상생협약에 대해 벌써 회의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어묵 품목 업체들은 지난해 10월 상생협약을 맺었는데, 1년 동안 상생이 잘 지켜졌는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외 업체들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상생협약도 대기업 입맛에 맞춘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상생협약의 가장 큰 맹점은 자율 규제인 만큼 협약을 위반해도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상생협약으로 실익을 얻는 사례가 있기는 했다. 막걸리 품목이 대표적이는데, 이곳은 상생협약으로 대기업의 막걸리 시장 진출을 차단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규제 중심의 사업 영역 보호 기능 외에 상생프로그램 중심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상생협약 전담부서를 설치해 협약 이행 관리와 상생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른 시일 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기범 기자 modest12@

전문가 “제도 실효성 높이려면...”

“중기부·동반위, 보다 체계화한 관리·감독 필요”

적합업종 지정에 그치지 말고 잘 작동하고 있는지 지켜보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도

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리·감독 기관의 보다 체계화한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맺고 있는 ‘상생협약’ 역시 상대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보호 범위를 좀더 넓히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린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상생협약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하고, 보완하면 빈틈을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부원장은 “중기부와 동반위가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상공인 실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며 “적합업종으로 지

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지켜보아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원장은 적합업종 해제 이후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언급했다. 적합업종으로 보호받는 5년간 해당 소상공인 업종이 경쟁력을 키울 방법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 해당 업종 소상공인이 얼마나 자생력을 키우는지가 관건”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 협회 단위로 스마트 기술을 보급하는

등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등 지원 시스템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이 부원장은 적합업종 품목을 두고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벌이는 갈등뿐만 아니라 품목이 교차된 갈등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했다. 우아한형제들이나 요기요 등이 서비스하는 ‘B마트·요마트’ 등의 배달 서비스가 인근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영세 소상공인과 마찰을 빚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이 부원장은 “유통플랫폼의 직접 배달서비스는 기존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갈등을 벗어난 신사업 갈등구조”라며 “이를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란 풀 수는 없다”고 짚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도 “이미 정해진 법과 기준을 그대로 답습하기보

다 더욱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등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너무도 길다”며 “최장 15개월이 걸리는 지정 기간 중소상공인은 대기업의 관련 산업 진출과 사실상의 독점적 영업으로 골목상권이 설 자리를 좁히는 것은 물론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전문가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원래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고려한 것인데 영역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상생협약을 1차적으로 하고, 그 래도 문제가 된다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가는 방식을 취하는 단계적 적용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재훈 기자 yes@·이다원 기자 leedw@

〈최대주주·특수관계인〉

與, 의결권 '3%' 개별인정·주식 의무보유기간 '1년' 으로

'상법개정안' 일부 수정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입법과 관련한 핵심 쟁점인 '3%룰'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최대 주주 합산 3%가 아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로 개별 인정하고 소수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 보유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 3법 TF는 전날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선 감사위원 선출과 의결권 행사에서 지분 1~3%만 있으면 주식을 6개월간 보유하지 않아도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안의 회피 조항을 삭제하고 주식 보유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재계는 최소 2년 이상 의무 보유기간을 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병욱 의원이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상임의 논의 과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안과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르면 16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와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재계·야당 "기업규제 3법" 반발에 '다중대표소송제 완화' 등에 무게 '감사위원 분리선출' 방안은 유지
공정경제 TF, 내주 상임위에 상정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 등은 정부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삼고 있다. 야당과 재계는 이를 '기업규제 3법'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현행 상법에서는 기업이 이사를 선출한 다음 선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한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행법은 사외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3% 룰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사외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뽑는 현행 제도의 특징을 고려하면 대주주 입김이 작용해 3% 룰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선출토록 규정했다.

상법 개정안이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원안대로 통과되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도입, 처음부터 이사와 분리해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유동수(맨 왼쪽)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단장이 지난달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공정경제 3법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감사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양측 지분을 합산해 총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대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이 줄어든다.

최대 주주의 의결권 축소에 야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경영권 침해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감사위원을 사내이사과 분리해 선출하는 방안을 유지할 방침이다. '3%'라는 기준도 유지해 의결권 제한 한도에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법상 3%는 다른 법률에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애매한 숫자"라며 "자본시장법상 5% 기준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을 모아 상임위에 넘겨주려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신중한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내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렵다고 보고 해당 법안의 상임위 상정 일정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에서는 자회사에 소송 제기가 가능한 모회사 주주 자격과 모회사 소유 지분율 기준을 소폭 올려 재계의 견을 반영키로 했다. 정부안은 모회사 주주 자격 지분 0.01% 이상, 자회사와 모회사의 지분율 50%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기업 간 중대한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 또한 명확히 규정해 고발 남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재계 반응

“주요그룹 의결권 10%대밖에 안돼 투기세력 경영권 침해 가능성 여전”

“집단소송제 등 他 쟁점도 손봐야”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3%룰 완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계는 여전히 투기세력의 기업 경영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3법(혹은 기업규제 3법) 중에서 기업들이 가장 크게 반대하고 있는 3%룰의 일부 수정에 나설 계획이다.

3%룰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이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들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개별로 3%까지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이사회와 핵심인 감사위원 자리를 적대적 세력에 빼앗길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현대차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현대모비스는 기아차가 17.28%,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7.13%, 현대제철이 5.79%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총 9% 지분율과 나머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도 10% 정도밖에 안 된다.

SK그룹 역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최대주주가 인정받을 수 있는 지분이 10% 정도다.

결국, 해지펀드나 적대적 M&A(인수합병) 세력과 같은 투기세력의 공격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가.

2004년 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이 SK그룹 주식 14.99%를 확보해 이를 3%로 쪼개고 5개 펀드로 분산시켜 경영권을 공격한 적이 있다.

지난해에도 엘리엇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각각 2.9%, 2.6% 가진 상태에서 경영 참여를 시도했다.

그룹 계열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 보유 현황 (단위: %, 2020년 6월 말 기준)

그룹명	계열사	3% 이상 대주주 지분현황	개별 3% 적용시 최대주주 지분율
삼성	삼성물산	이재용: 17.33	14.02
		이부진: 5.55	
		이서현: 5.55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17.28	10.01
		정몽구: 7.13	
		현대제철: 5.79	
SK	(주)SK	최태원: 18.44	10.23
		최기원: 6.85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법 개정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이 밖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이 있는 한 3%룰을 완화해도 소용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현행 상법에는 이사를 먼저 뽑은 뒤 그중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각각 3%로 제한하게 돼 있다"며 "감사위원 별도 선임 조항이 살아 있는 한, '합산'이든 '개별'이든 경영권 위협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강화가 통과되면 외부 주주가 제안한 감사위원 후보자가 선임될 가능성이 현행 대비 11.4배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여당의 수정안대로 개별 3%를 적용해도 가능성은 4.6배로 올라간다.

재계는 3%룰 논란에 묻혀 기업 규제 3법의 다른 쟁점들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3%룰뿐 아니라 집단소송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속고발권 폐지 등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계 관계자는 "3%룰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들도 기업에는 치명적"이라며 "실질적으로 경영 환경을 고려해 법안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NAUH 모바일증권 나무
NH투자증권

나무에서 미국주식 산다고요?

거래수수료 딱 0.09%만 내세요!

+ 환전우대 100% 추가혜택

(2021년 3월 31일까지)

* USD 환전 시(NH투자증권 고시 환율 기준) : 매수기준환율 + 스프레드 0% / 매도기준환율 + 스프레드 0%

* 대상국가 : 미국(USD), 중국(CNY), 홍콩(HKD), 일본(JPY)

적용 매체	나무 온라인 매체 (앱, HTS, 홈페이지)
기간	2020.09.14 ~ 2021.03.31
대상	1. 이벤트 기간 중 나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당사 최초 신규 고객 2. 나무 계좌 보유 고객 중 2020년 기준 해외주식 미거래 고객 (단, 2020년 기준 영업점 거래 계좌 보유 고객 제외)

※ (해외)주식 및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해외)주식 및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해외주식 이벤트 혜택이 대상이 아닐 경우 해외주식 매매수수료 0.25%(미국, 온라인기준, 국가별 수수료 상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환자산이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온라인 거래 최소 수수료 미국/중국/홍콩/일본은 없으며, 영국(GBP10), 독일(EUR10), 호주(AUD10), 베트남(VND 600,000), 인도네시아(IDR 350,000)입니다.

※ 이벤트 대상고객의 수수료 매매 서비스의 수수료결제제도의 경우에도 100% 환전 우대율이 적용됩니다.

※ 미국달러(USD) 매수 시 환전 우대 예시
- 이벤트 대상: 매수기준환율 + 스프레드 0% 적용(100% 환전 우대)
- 이벤트 미대상: 매수기준환율 + 스프레드 1% 적용(단, 고객 등급별 또는 환전금액별 우대를 추가 적용)

* 환전 시 최종 우대를 확인 가능
* 매수기준환율은 HTS 환율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NH투자증권 고시 환율임

※ 고객센터, 환전금액별 환전우대율을 홈페이지/고객센터/고객공지/새소식/환율우대정책 변경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제20-04556호(2020-10-05-2021-10-04)

<3.5%→3.1%>

내년 성장률 낮춘 KDI... “증세 검토해야”

소비 2.4% 늘고 물가 0.7% 상승... 수출 회복에도 내수 부진
올해 성장률 -1.1% 전망... 취약계층에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

하반기 경제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 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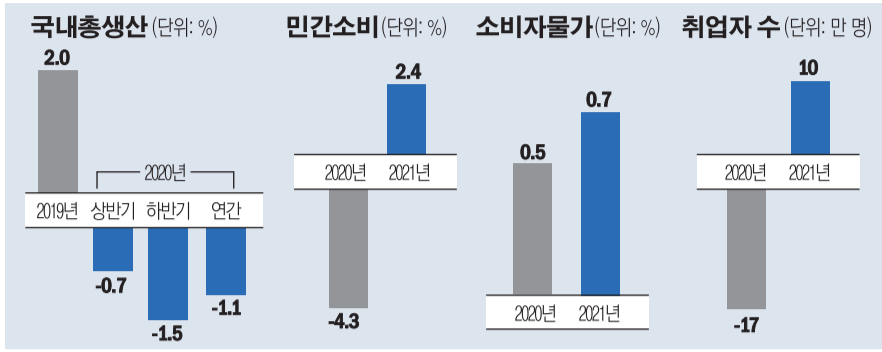
KDI는 이날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는 올해 1.1% 역성장을 기록한 후, 내년에는 상품 수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제한되면서 3.1%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물가는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대인플레이션과 수요압박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0.7%의 낮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취업자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

로 서비스업 부진이 지속하면서 10만 명 정도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네 차례 집행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기여도(0.5%P)를 반영한 수치다.

9월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과 비교하면 올해 전망치는 유지했으나, 내년 전망치를 3.5%에서 3.1%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10월 전망(올해 -1.9%, 내년 2.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9월 전망(올해 -1.0%, 내년 3.1%)과 유사한 수준이다.

내년 전망치 하향 조정의 주된 배경은 서비스업 부진이다. KDI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민간소비가 올해 4.3% 감소(전년 대비)하고, 내년 역시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2.4% 증가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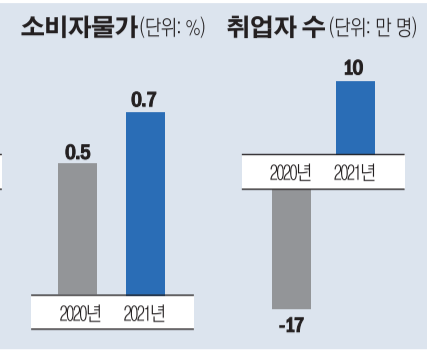
KDI 주요 경제전망 (전년 동기 대비)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8대 소비쿠폰 지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등 일시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방역정책 완화를 경계했다. 대신 재난지원금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KDI는 “서비스업의 생산활동을 제약했던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을 통해 경기 회복을 저

* 출처: 한국개발연구원(KDI)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일시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보전 상황에 중점을 둔 방역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신 대면·밀집활동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조정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하는 등 재정의 소득 재분배 역할에 더욱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KDI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단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고려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고, 재정수입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년 경제전망의 위험 요인으로는 전세계적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보급 지연, 미·중 간 전면적 대립에 따른 글로벌 경제심리 위축 등을 제시했다. 이 중 미·중 갈등은 불확실성이 크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은 상방요인과 하방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정책은 소폭 변동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세종·김지영 기자 jye@



11일 코스피가 2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기록하며 1%대 상승한 2480선에서 장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3.04 포인트(1.35%) 오른 2485.87에, 코스닥은 0.89포인트(0.11%) 내린 839.90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5.1원(0.46%) 떨어진 11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18년 12월 4일(1105.3원) 이후 최저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문 대통령 “농촌 르네상스 추진”

농업인의 날 17년 만에 참석
“국가 식량계획 수립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서 개최된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수해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노고를 겪은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농업과 농촌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우리나라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57명 중 5명에게 정부포상을 직접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를 도입해 논과 밭의 직불금 편차를 줄여 쌀 편중을 완화하고, 소농직불금으로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는 등 농업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높여나간 그동안의 성과를 강조했다.

농정 틀 전환에서 나아가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의 한 축으로서 농업·농촌의 새로운 비전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저밀도 사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이 바라는 농촌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농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량위기에 대비해 식량 공급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식량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농업의 미래 비전을 보여줄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농업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현직 대통령이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7년 만이다. 정일환 기자 whan@

문 대통령, 오늘 바이든과 통화

청와대는 이르면 12일 밤(한국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간 첫 정상통화가 가능하도록 시간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일정을 묻는 질문에 “일단 오늘(11일) 통화할 계획은 없다”면서 “내일 통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율 중이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시작으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미셸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전화회담을 진행했으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도 이르면 12일 첫 전화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직접 축하 인사를 전하는 것은 물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양 정상 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남북미 간 현안에 관한 원론적인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정일환 기자 whan@

자율주행 우승 충북대 타요팀 “기술 개발 정진”

산업문화재단 후원 매년 개최
실제 도로서 픽업서비스 경연

“충북대학교가 도심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 국내 최고 수준임을 증명했습니다. 한국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 더 정진하겠습니다.”

이재철 충북대 타요팀장(지능로봇공학과 대학원생)은 1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말 열린 ‘2020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우승(국무총리상) 소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평화재단 등이 후원하는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는 신산업 분야의 미래 주역인 대학생들의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미래자동차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열리는 경진대회다. 올해 경진대회(본선)에는 충북대를 비롯한 포항공대, 성균관대 등 13개 대학에서 15개 팀이 참가했으며



지난달 31일 열린 ‘2020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에서 충북대 타요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제공 한국산업기술평화재단

실제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적용한 자율주행 택시 픽업서비스 미션으로 진행됐다. 참가 팀 중 충북대 타요팀은 다른 팀보다 뛰어난 기술력과 판단력으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타요팀은 지능로봇공학과 로보틱스 연구실의 석·박사 과정 학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 팀장은 “이번 대회에선 탑승승객(또는 택배)을 선택한 후 자율주행으로

픽업해 목적지로 이동하는 미션이 주어지면서 종전 대회보다 수행 과제들이 많았다”면서 “정해진 시간 내에 교차로, 신호등 외 교통혼잡 상황에서 점수가 높은 수행 과제를 선택할지를 고민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수행과제를 잘 선택해 초반부터 다른 팀보다 많은 미션을 수행한 것이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타요팀의 우승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 팀장은 “대회 일주일 전에 브레이크 모달이 고장나 고치는 데 3일이 걸려 리허설을 잘 하지 못하는 등 우려극점이 많았다”며 “그래도 우승을 차지해 액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충도 털어놨다. 이 팀장은 “자율주행을 연습할 곳이 너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애로점”이라며 “물론 충북대는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시험공간)가 있어 연습할 수 있었지만 다양한 환경의 테스트 베드가 별로 없다. 정부가 더 많은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이달 1~10일 수출 20.1% ↑ ... 반도체·무선기기 등 호조

한국 수출이 이달 첫 성적표에서 20%대 급증세를 보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다만 올해 전체로 봤을 때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관세청은 11월 1~10일 통관 기준 잠정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1% 증가한 141억 달러, 수입은 7.8% 증가한 133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한국 수출은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하다 9월 7.6%로 반등했으나 지난달 다시 3.6% 후퇴했다. 다만 10월 역시 조업일수를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5.6% 늘어 회복

세를 유지했다. 이달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31.9%), 무선통신기기(33.3%), 승용차(8.3%) 등이 이끌었다. 다만 석유제품(-24.1%)은 여전히 부진했고, 컴퓨터 주변기기(-3.1%) 수출도 감소했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지만 2~3분기 교역이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아 올해 무역액 1조 달러 달성은 힘들어 보인다.

올해 연간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하려면 11~12월 무역액이 2020억 달러를 넘어야 한다. 지난해 11~12월 무역액은 1741억 달러로 이를 넘어야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 서울로 잇다 행사는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 콘텐츠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양질의 일자리, 경제회복이 관건... 재정확대·규제 풀어야”

전문가 진단·대책

정부 제공 '재정 일자리' 한계 취약계층 안정적 일자리 급선무 시간제 정규직 확대 대안될 수도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이병훈 중앙대 교수



성태운 연세대 교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일터를 잃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임시·일용직), 미취업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한시적인 일자리에 불과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취약계층이 생계 어려움에 시달리지 않도록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제공을 확충하되, 이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경제가 살아야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약 1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연말까지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11만5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일자리는 근무요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한 달에 180만 원가량을 받는다. 무엇보다도 근무기간이

4개월 정도에 불과해 사실상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무방하다. 일자리를 얻어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실직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요건으로 인해 중도 퇴사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7-9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채용한 인원은 1540명으로 이 중 43%에 달하는 661명이

채 2개월이 되기 전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퇴사자 비율이 높은 것은 일자리 질이 낮다는 방증"이라며 "정부가 단기 일자리 통계만을 위해 국민 혈세를 투입하기 보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김 의원과 비슷한 생각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현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일단은 정부가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에 단기적으로 일자리 제공에 힘쓰고, 이와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와 노동시장이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돈을 풀어 실질적인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 및 일자리 제공에 나서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와 함께 유망 4차 산업과 전통 주력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경제 체질을 제고해야 한다. 그래야 취약계층이 편입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대

적으로 경기를 덜 타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나누기도 필요하다. 시간제 정규직 확대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성태운 연세대 경제학부도 교수도 "실질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선 규제 완화와 필요하다. 그러면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고, 일자리 창출도 동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문제"라며 "생산성과 투명한 성과 평가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 구축도 중요하다는 주문도 있었다. 이병훈 교수는 "현재 전체 취업자 중 절반 가까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을 고용보험에 편입시킨다면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내년 1월에 도입되는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전국민에 돈풀기보단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필요”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 시급... 직무역량 유지 대책 절실”

“선택과 집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불거진 일자리 부족 사태에 대해 고용 전문가들이 입을 모은 단어도.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어느 정도 강도로 이어질지 예상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대책을 마련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라고 말한다. 이에 정부가 한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모든 국민을 위한 돈 풀기를 하기보단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생계를 위협받는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동원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전 고려대 교수)는 “과거 스페인독감을 보면 발생 첫해보다 이듬해가 더 심각했다. 지금

도 서막에 불과하고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며 “기업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아서 버텼는데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가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등 전 국민을 상대로 재정을 사용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로 끝날 수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정부가 신속하고 정확한 소득 파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소득 파악이 안 되는 저소득층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플랫폼 노동자는 더 증가

할 것이기 때문에 소득 파악 시스템을 구축해 저소득층인데도 소득 파악이 안 돼 정부 지원에서 후순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생계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와 직무역량 유지 노력이 시급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닥치니 일을 할 수 있는 임금 근로자와 하루 일을 안하면 생계비를 벌 수 없는 계층이 확 갈렸다”며 “추경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지원해온 있지만 올해만 이렇게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5년 단위원 10년 단위원 이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무역량이 상실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동원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장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실장

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 실장은 “한국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심화 과정이 없고 기본과정만 있다. 이는 직업훈련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일자리에 자체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오 실장은 “최근 높은 수준의 직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늘어 기업이 정규

이 경제가 회복됐을 때 직무 전선으로 돌아가는 시간도 적게 들고 적응도 더 잘할 수 있게 해준다”며 “직무역량을 잃지 않도록 유지해주고 경제가 회복되는 단계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자리에 들어가는 게 효율적인지 연결해 취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구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으로 바뀌는 추세”라며 “기업의 채용이 바뀌고 직업에 대한 수요가 바뀌면 전문적인 일자리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도 현재까지 낮은 수준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했다면 앞으로는 저소득층을 중급이나 고급에 대한 일자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우선적 지원을 유도하는 방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굿네이버스

아이들 편에서 들어주세요

아이들의 목소리로 만드는 세상

굿네이버스가 함께합니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아이들 편에서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아동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정권이양 재 뿌리는 트럼프... 바이든 "망신 그 자체"

“출범준비 순조롭다” 밝혔지만
인수위 활동 막히며 곳곳 차질



조 바이든 당선인이 10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윌밍턴/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외국 정상과의 통화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의 작렬하는 뒤끝 탓에 정작 자신의 행정부 출범 준비과정에 말 못 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 컨 극장에서 개최한 건강보험개혁법(ACA), 일명 ‘오바마케어’ 관련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대선 불복 주장에 대해 “솔직히 망신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세련되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대통령의 유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권 인수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금 시점에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계획과 하는 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이미 인수 작업을 시작했고 잘 진행되고 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이 3일 대선에서 매직넘버(270)를 넘겨 승리를 확정지었음에도 선거 부정이 있었다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날 바이든의 기자회견이 있기 몇 시간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가 이긴다”며 불복 의지를 고수했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의 버티기에도 갈 길을 가겠다고는 했지만, 순조로운 정권 인수 준비가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정권을 넘겨줄 정무적 절차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다. 바이든이 정권 인수 절차를 정식으로 진행하려면 우선 연방조달

청(GSA)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GSA 청장은 1963년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계법에 따라 명백한 선거 승자를 발표하고 당선인의 취임 준비를 도울 인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 인력, 자금 등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밀리 머피 GSA 청장은 아직 승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바이든 쪽과 정권이양을 준비하지 말라고 지시한 탓이다. 이에 바이든 정권 인수팀이 정부 기관에 파견된 인수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기밀정보를 들여다볼 수도 없어서 외국 정상들과 연락을 취하기 위한 국무부 시설도 이용할 수 없고, 후보자 신원 조사를 못 해 인선 작업도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바이든은 GSA가 끝까지 차기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모호한 법 규정에 막혀 어려운 싸움이 될 전망이다. 해당 법은 ‘GSA가 명백한 승자를 결정해 발표한다’고만 명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GSA는 인수 절차 시작 시점을 주요 언론의 승자 확정 발표를 기준으로 삼아왔다. ‘트럼프의 미국’이 기존 관행을 뒤엎으며 바이든 정권 출범에 재를 뿌리고 있는 셈이다. 김서영 기자 0jung2@

펜스 이어 폼페이오도 “불복”... 혼돈에 빠진 美

트럼프 측근 “정권 2기” 외치며 조직적 움직임... 국가안보·경기부양 경고음

대선 결과에 줄곧 침묵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들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을 비롯한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선 불복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조직적 불복 시나리오가 가동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0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확실시한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모든 표를 다 세야 한다”며 “트럼프 정권 2기로 순조롭게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이긴다!”며 선거 부정 음모론을 제기, 법정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폼페이오의 발언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과 뜻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는 기자들로부터 “세계 각국에 공정한 선거를 촉구하는 미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추궁당하자 “바보 같은 질문”이



마이크 펜스(왼쪽) 미국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AP연합뉴스

라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현재 국무부는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와 접촉을 거부하고 정부 기관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가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다.

대선 이후 두문불출하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걸 끝내지 않았다”면서 “모든 합법적인 투표가 집계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보내려던 휴가도 취소하고, 워싱턴D.C.에서 현 상황을 주시하기로 했다.

공화당 미치 매키넬 상원 원내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 동조했다. 매키넬 대표는 상원 연설에서 “불법 투표용지는 집계해선 안 된다”며 “개표 절차는 투명하고 모든 면에서 감시 감독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100% 그의 권한 내에서 부정행위 의혹을 살펴보고 법적 선택권을 검토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트럼프 편에 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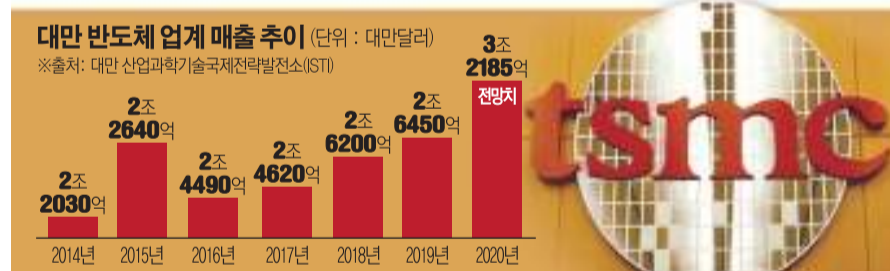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의지에 힘이 실리면서 막무가내 인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전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갑자기 경질된 데 이어 이날 제임스 앤더스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직무대행까지 사임, 국방 공백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적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자리를 놓고도 양 진영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공화당은 공적인 연준 이사를 ‘트럼프 코드’에 맞춰 연방대법관 후임 지명 때처럼 ‘보수 우위’ 구도로 굳히려는 생각이다. 연준이 보수 우위가 되면 금융 규제가 어려워질뿐더러 경기부양책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최혜림 기자 rog@



‘생켄협정’ 개정 카드 꺼낸 마크롱

앙겔라 메르켈(왼쪽) 독일 총리가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진행한 화상회의에서 발언하는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유럽 내 테러와 관련해 망명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며 생켄협정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생켄협정은 EU 회원국과 소수 비회원국들이 1985년 체결한 조약으로, 여행객이 비자나 여권 검사 없이 자유롭게 국경을 이동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베를린/AP연합뉴스



대만 ‘화웨이 반사익’... 반도체 생산액 21% 급증

대만 반도체 업계가 화웨이테크놀로지 등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효과를 특목히 보고 있다.

대만의 올해 반도체 생산액이 전년보다 21% 급증한 3조2185억 대만달러(약 126조 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10일 일본 니혼게이지사이신문(닛케이)이 대만 싱크탱크 산업과학기술국제전략발전소(ISTI) 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ISTI는 “이대로라면 올해 대만 업계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일본 기업과의 연계 강화 등으로 반도체 생산액이 4%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닛케이는 ISTI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세계 반도체 생산(설계 포함)이 57조 엔(약 604조 원)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미국이 43%로 1위, 2위는 대만(20%), 3위는 한국(16%)이 각각 차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생산 업체(파운드리)인 TSMC가 대만 전체 반도체 산업

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TSMC는 반도체 생산기술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쌍벽을 이루고 있다.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애플 등 전 세계 주요 IT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특히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제재의 영향으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려는 업체들이 한층 TSMC에 의존하게 됐다. 순조로운 수주를 바탕으로 TSMC는 올해 설비투자를 전년보다 14% 증가한 약 1조8000억 엔으로 잡았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대만 정부도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대만을 세계 최고의 반도체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대만 경제부 산하 대만투자입구망(InvesTaiwan)은 이날 미즈호은행과 일본 기업의 대만 투자를 촉진하는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반도체 제조 장비와 소재에 강한 일본 기업들은 이미 100여 곳이 대만에 진출해 TSMC 등의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코로나 탈출구 보이자 기술주 ‘폴석’

백신 개발 소식에 ‘비대면 특수’ 실종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상용화 기대감이 커지자 미국 증시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부분의 종목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특수를 누리던 IT 관련주들은 그동안 받아왔던 관심이 사그라들면서 하락기를 맞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가 일어나고 있다. 이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159.93포인트(1.37%) 하락한 1만1553.86에 마감했다. 다우지수가 0.90% 상승하고, S&P500지수가 약보합 마감한 것과 비교하면 전날에 이어 이를 연속 눈에 띄는 하락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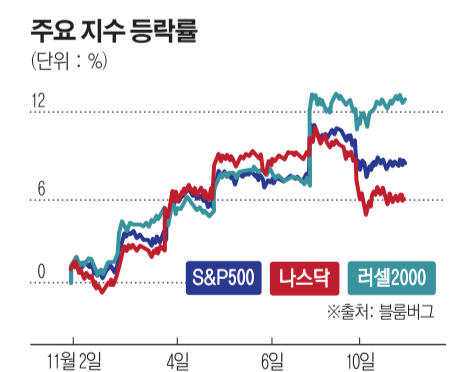
또 미국 경제의 바로미터로 평가받는 러셀2000지수의 소형주 그룹은 1.9% 상승

했다. 이는 경제 회복 기대감과 대형 기술주의 평가가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위스자산운용사티데만콘스탄티아의 피에르 보제 최고투자책임자(CFO)는 “일부 자금이 기술 부문에서 빠르게 빠져나오고 있으며, 지속적인 랠리로 부분적으로는 수익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으로 인해 사회적 제약들이 완화된다면 경기민감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앞서 전날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는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한 백신이 90% 이상의 예방효과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FT는 “투자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재미를 봤던 종목들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아마존과 줌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각각 3.46%, 9.01% 급락한 점을 짚었다. 또 S&P500이 약보합을 기록한 것 역시 마이



크로스소프트(MS)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대형 IT 종목들의 하락이 다른 종목의 상승 분을 상쇄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금융그룹 소시에테제네랄의 소피 후인 멀티자산 전략가는 “빅테크 종목에서 빠져나가는 전환 작업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백신 도입과 대유행 과정에 확신이 생긴다면 전환 작업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신 기대는 주식시장 밖에서도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10년 만기 미국채수익률은 0.95%로 0.03%포인트 상승(가격은 하락)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선명해졌다. 고대명 기자 kodae0@

〈투자원금 전액 반환〉

하나銀 ‘환매유예 신재생 펀드’ 라임 배상 전철 밟나

금감원, 불안전판매 집중 검사
허위정보 제공 입증 땀 계약 취소

피해자 “펀드 상품, 정보 비대칭
사모펀드 사태 줄이어 터질 것”



금융감독원이 10월 초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나은행 종합검사서 500억 원 규모의 영국 신재생에너지펀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서에서 하나은행이 판매한 펀드에 초점을 맞춰 라임펀드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펀드의 불안전판매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이 판매 당시 투자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했다면 라임 펀드와 같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해당 부분이 주요 검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달부터 시작한 하나은행 종합검사서에서 환매 유예가 확정된 영국 신재생에너지펀드의 불안전판매 여부와 투자자에게 제공된 운용보고서 정보의 적절성 및 진실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금

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종합검사는 펀드 판매 과정의 부실절차를 들여다보기 위한, 펀드 집중 검사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위정보 제공했다면 ‘계약취소’= 금감원이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하나은행이 상품 판매 당시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다. 만약 하나은행이 투자자에게 거짓된 정보로 가입을 회유했다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돼 판매자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지난 6월말 금감원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해 금융 분쟁조정 역사상 처음으로 판매사들에게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안건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과거 2008년 피닉스자산운용은 총 95억 원의 자산으로 그해 8월 피닉스 사모특별 자산투자신탁 제14호 설정을 완료했다. 당시 펀드는 비행기를 구입한 뒤 필리핀 항공사에 대여하고, 해당 항공사가 특정 노선을 신규 취항하면 이를 통한 항공운송료 수입을 얻는 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당시 판매사였던 우리은행 직원은 펀드 상품을 판매할 때 항공기 노선에 대한 인허가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인허가 신청만 완료된 상태였다. 결국, 신규 취항은 불허돼 펀드는 손실이 났다.

투자자들은 해당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갔고 2016년 대법원은 ‘판매사가 허위 사실을 내세워 판매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어 투자자들의 과실을 묻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의 라임 배상 결정에도 과거 피닉스 펀드 사건의 대법원 판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다.

당시 피닉스 펀드 투자자들의 소송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한누리는 최근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이번 신재생에너지펀드 소송까지 맡고 있다. 한누리 관계자는 “판매사와 운용사의 설명이 과거와 현재가 달라지고 있어 판매 당시 투자자들이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 해당 정보가 허위인지 여부를 다시 분석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 선취수수료가 2%로 평균에 비해 높은 점 또한 하나은행이 운용사에 OEM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투자자들이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펀드의 운용자금과 모집자금이 약 198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돈이 어디로 증발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사태 이제 시작”=신재생에너지펀드 투자자들은 이번 주말까지 금감

원에 환매 유예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이 하나은행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하나은행이 판매 당시 투자자에게 제공한 상품설명서 및 불안전 판매 관련된 정황들을 자세히 증언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등 끊이지 않는 사모펀드 피해는 예견된 일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신재생에너지펀드 환매 유예를 시작으로 원금은 물론 이자도 받지 못 하는 사모펀드 피해사례가 잇따라 터질 것이라 분석이다. 또한 지난 7월부터 금감원 내에 구성된 사모펀드 전수조사 테스크포스(TF)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실 펀드의 실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 전망이다.

이의환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대위 집행위원장은 “펀드 상품 자체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투자자는 불안정한 정보를 받고 투자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사모펀드 사태는 이제 시작이다. 신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펀드 사고가 계속해서 연달아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관치 논란에... 새 은행연합회장 선임 안갯속

후보군 구성 ‘물밑작업’ 착수
내주 2차 회의서 룰리스트 확정

새 은행연합회장 선출을 위한 물밑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모펀드 사태로 뒤숭숭한 은행권의 상황을 고려해 금융당국과 교감할 수 있는 관료 출신 인사가 유력한 가운데 변수도 있다. 관치 논란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연합회 이사진들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 한 호텔에서 조찬 모임을 열고 차기 연합회장 후보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은행연 이사회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10명의 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KDB산업·IBK기업·SC제일·한국씨티·경남은행) 등이 이사진으로 구성됐다. 이사회가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 역할도 맡는다.

이날 주요 은행장들이 차기 은행연합회장 룰리스트(회장 후보군) 구성을 위

한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후보 추천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연합회 회주위는 행장들이 1명 이내 후보를 추천하면, 후보군을 추려나간다.

김태영 회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회추위 작업)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고, 다음 회동 때 후보군을 각자 추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다음주 2차 회의를 열고 룰리스트를 확정한다. 이후 슛리스트(최종 후보군)가 정해지면 차기 은행연합회장은 22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통상 연합회장 최종 후보군은 단독 후보를 통해 결정했다. 김 회장의 임기는 이달 30일까지다.

차기 회장으로서 관(官) 출신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많다. 사모펀드 사태로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이유로 관료와 정치권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거론됐다.

전직 금융당국 수장을 지낸 최중구

전 금융위원장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대표적이다.

다만, 최 전 위원장이 최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에 차기 회장직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국회 정무위원회 출신의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힌다. 행정고시 출신의 김용환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도 물망에 올랐다.

막판 변수는 ‘관치 논란’이다. 은행을 대표해야 하는 만큼 업계 사람이 수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순수 민간 출신으로는 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장, 김한 전 JB금융지주 회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현 김태영 회장처럼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던 갑작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기존에 언급되지 않았던 인물로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이 최근 급부상했다. 신 전 사장은 3년 전 회추위 때 홍재형 전 부총리, 김창록 전 산업은행 총재와 함께 ‘빅3’ 후보군으로 올랐던 인사다.

김범근 기자 nova@



신한카드는 10일 지역 상생을 위한 ‘대구로 서문시장 프로젝트’ 오픈식을 대구 서문시장에서 진행했다. 이날 오픈식에 참석한 문동권(오른쪽) 신한카드 경영기획그룹장, 홍의락(가운데)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김범수 서문시장상가연합회 회장. 사진제공 신한카드

대구 서문시장에 ‘상생 가교’ 놓은 신한카드

‘히어로 프로젝트’ 확대

신한카드는 지역 상생 ‘히어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구시에서 ‘대구로 서문시장 프로젝트’를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히어로 프로젝트는 신한카드의 브랜드와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공 디자인과 아트 마케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고객을 연결하고 지역 고유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다.

대구 성곽 서쪽을 따라 형성돼 예전부터 전국 3대 시장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서문시장에는 대구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랜드마크가 조성됐다. 성곽·뿔마루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커뮤니티 공간 ‘서문마루’, 깃발을 형상화해 공간 주목도를 높인 상인들의 쉼터 ‘만남의 광장’, 서문시장의 밤거리를 채우는 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사계절과 대구의 밤 풍경을 테마로 제작한 ‘미디어 파사드’ 등은 상인들에게는 따뜻함을 전하고 시민들에게는 추억을 선물하는 새로운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 박은평 기자 pepe@

김진균 수협은행장 “임중도원 마음가짐으로 이끌 것”

김진균(사진) 신임 Sh수협은행장이 11일 취임식을 갖고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수협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본점 강당에서 김 신임 행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임기는 2년으로 2022년 11월10일까지다.

전날 열린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는 행장 선임안을 100%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수협은행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완전 자회사로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은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는 지난 9월



11일 임시위원회 선임 결의를 시작으로 총 8차례 열렸다. 두 차례 면접 끝에 행추위는 지난 달 28일 김 신임 행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행추위 관계자는 “수협 조직의 특수성과 경영 이념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내부 출신 금융 전문가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수협은행의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

혔다.

1963년생인 김 신임 행장은 지난 1992년 1월 수협중앙회에 입사했다.

이후 수협은행 총장·경인지역금융본부장, 기업그룹 부행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12월부터 경영전략그룹 부행장으로 근무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김진균 은행장은 “첫 내부출신 은행장으로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았다”며 “책임은 막중하고 갈 길은 멀다는 ‘임중도원’의 마음가짐으로 수협은행을 이끌어 나아가겠다”고 언급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10월 은행 가계대출 10.6兆 급증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주택 매매건수가 꾸준한데다, 최근 전세값이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추석 연휴라는 계절적 요인에도, 박히트 공모주 청약에 대한 증거금 납부를 위해 마이너스통장 등을 활용하면서 기타대출도 늘었다. 이같은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 관측이다.

기업대출 역시 5개월만에, 10월 기준으로는 5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은 10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에서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중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10조6000억원 증가한 96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8월(11조7000억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며, 10월 기준으로는 한이 관련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이래 역대 최대 증가다.

부문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6조8000억원 늘어난 709조4000억원을 보였다. 이 역시 2월(7조8000억원) 이래 최대 증가폭이며, 10월 기준으로는 2015년(6조9000억원) 이후 5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 8월(6조1000억원) 이래 석달째 6조원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극단 라하프 단원들



극단 라하프 연출 이한길

극단 라하프 단원 한소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라 는 설 자리를 만듭니다

하나금융그룹 파워온임팩트

발달장애인들이 취업을 통해서
혼자만의 힘으로 설 수 있도록
자신만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은 일자리 만들기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발달장애인들의 강점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홍석진



스프링샤인 도예가 이재영



스프링샤인 도예가 안윤주



소소한 소통 사원 이주형

QR코드를 찍어
[엄마의 졸업식]
Full 영상을 감상해보세요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배터리 소송 합의금’ 어디로? 고민 깊어진 LG화학

SK이노와의 합의 시점에 따라 12월 1일 분사 이전엔 LG화학 이후엔 LG에너지솔루션 차지 화학 등 기존 사업부 반발 우려

LG화학의 전지 사업부가 다음 달 신설 법인으로 분할되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과의 합의가 진행될 시 합의금이 LG화학과 신설 법인인 LG에너지솔루션 중 어디에 귀속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결론적으로 합의금은 SK이노베이션과의 합의 시기에 따라 귀속되는 회사가 변경될 예정이다.

11일 LG화학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합의할 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전지 사업부가 받을 예정이다.

전지 사업부가 분할 전이라면 LG화학이 받을 수 있지만, 내달 1일 전지 사업부가 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독립 법인이 된다면 LG에너지솔루션이 이를 받는다는 이야기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인력을 빼내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ITC는 LG화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올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종 판결은 두 차례 연기되며 12월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양사의 합의 가능성은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기 패소 판결이 최종 판결에서도 받아들여져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하는 경우 수조 원을 투자한 미국 배터리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LG화학과의 합의가 최선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양사 역시 합의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말 열린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최종판결의) 연기로 소송의 절차가 길어지게 됐지만 소송 절차에 충실히 임할 것이고 소송 장

기회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협의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양사가 합의하기 위해선 양사가 원하고 있는 합의금의 격차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원하는 합의금의 차이가 최대 1조 원까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두 회사가 합의할 시 합의금은 전지 사업부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12월 1일로 예정된 전지 사업부의 분할 이전이라면 LG화학에 합의금이 귀속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양사의 합의가 아직 요원해, 한 달 내 합의가 진척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만약 합의가 LG화학의 전지사업부 분할 이후로 미뤄지게 되면 합의금은 전지 사업부가 분할돼 신설된 LG에너지솔루션에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LG화학은

“합의금은 전지 사업부가 받게 된다”라는 입장이다. 신설법인이 합의금을 받으면 신설법인의 배터리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이 모두 LG화학에서 나간 상황이라서 신설법인이 이번 소송의 과실만을 따간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이미 LG화학에서 지급한 만큼 합의금이 전지 사업부로 소속될 경우 그동안 소송의 뒷받침을 한 석유화학 등 기존 사업부에서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신설법인이 100% 자회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어쨌든 LG화학에도 이익이 있을 것이라 단언했다. LG화학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의 성장이 완전 자회사인 만큼 LG화학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환경영향평가 승인

이르면 내년 하반기 첫삽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관문을 넘었다. 업계에선 내년 하반기나 2022년 상반기에는 첫 삽을 뜨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11일 환경부와 용인시에 따르면 이날 SK하이닉스와 국내의 협력업체가 만든 특수목적회사(주용인일반산업단지)는 8월 초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분안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

았다. 이는 지난해 8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한 이래 약 1년 4개월 만이다.

앞서 안성시는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반도체 처리수 및 생활하수가 시내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에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환경 당국은 역시 올해 안성시 의견이 평가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올해 1월 한 차례 반려 처리했다.

용인시와 SK하이닉스는 6월 안성시의 견을 일부 보충해 다시 분안을 제출했고, 반도체 처리수 방류 방법과 공시장 안전과 관련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두 번의 보완 과정을 거쳤다. 지난달 12

일 제출된 최종 보완안에는 애초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된 우회 방류 대신 정화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시설이나 대책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우회 방안을 놓고 하천 건전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환경평가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용인시는 다음 달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통합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SK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후 토지 보상을 거쳐 내년 하반기 또는 2022년 상반기에는 산업단지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노우리 기자 we1228@

美 ‘올해의 TV’ 4대 중 2대 ‘LG 올레드’

소비자매체 컨슈머리포트 선정

LG전자의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가 미국 소비자매체 컨슈머리포트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TV(Best TVs of 2020)’를 휩쓸었다.

11일 컨슈머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최고의 TV 4대 가운데 2대(모델명 65C9-65CX)는 LG 올레드 TV로 나타났다.

평가단은 LG 올레드 TV에 대해 고화질(HD), 초고화질(UHD)에서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 좋은 음질과 3차원 입체 음향효과를 구현하는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 오디오 기능도 장점으로 꼽혔다. 소니의 올레드 TV(모델명 XBR-65A

9G)도 최고의 TV 4대 중 하나로 선정됐다. 삼성전자의 QLED TV(Q90)는 LCD TV로는 유일하게 최고의 TV로 뽑혔다.

한편 2000달러 이하 초대형 TV 부문에서는 LG전자 나노셀 TV(75NANO91), 삼성전자 QLED TV(QN75Q7DT), 소니 TV(75X900H), 하이센스 TV(75H8G) 등이 이름을 올렸다.

1000달러 이하 65인치 TV 부문에서는 LG 나노셀 TV와 TCL TV 2종, 하이센스 TV가 선정됐다.

가격 대비 좋은 성능을 구현하는 가성비 TV로는 삼성 QLED TV와 소니 LCD TV가 각각 추천됐다.

권태성 기자 tskwon@

“르노삼성, 한국 남고 싶어...노사 화합이 중요”

시노라 사장, 경쟁력 확보 강조 다음 달 ‘XM3’ 유럽 물량 생산

도미니 시노라(사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이 한국 시장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이들을 위해선 노조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노라 사장은 11일 경기 가평에서 열린 ‘뉴 QM6’ 미디어 시승행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논쟁이 지속된 시기가 있었지만, 르노삼성차는 한국 시장에 남아 있고 싶다”라며 “그런 르노삼성 모든 임직원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라 밝혔다.

그는 “그래서 노조와의 대화가 필요하



고,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핵심적”이라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시노라 사장은 “수출 경쟁력이 관건이다. 프랑스 고객이 한국에서 생산했다는 이유로 더 비싼 차를 구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노라 사장은 “해외시장을 공략하려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올해 수출

물량이 적었고 르노삼성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모든 역량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르노삼성은 내달부터 부산공장에서 XM3 유럽 수출 물량을 생산한다. 가솔린 모델부터 생산하고, 내년부터는 하이브리드(HEV) 모델도 부산공장에서 생산해 유럽에 수출할 예정이다.

한편 르노삼성 노조는 최근 차기 지도부를 뽑는 선거에서 강경 성향의 박종규 현 위원장을 선출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기본급 7만1687원 인상(4.69%) △700만 원 일시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협상을 이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편의사양 강화 ‘카니발 하이리무진’ 6066만원부터

기아자동차는 11일 4세대 카니발을 기반으로 편의사양을 강화한 ‘카니발 하이리무진’ 모델을 출시했다.

기본 모델 대비 최대 291mm 늘어난 머리 공간을 바탕으로 동급 최고수준의 여유로운 공간성을 확보했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 나아가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을 갖춰 웅장한 입체감과 고급스러움을 갖춘 새 모델로 탄생했다.

실내는 ‘테일러드 스페이스(Tailored Space)’, 이른바 ‘맞춤 공간’을 콘셉트로 구성했다. 동반석 시트백에 부착된 ‘내장형 공기청정기’는 실내 공기 상태를 감지하여 초미세먼지 및 실내 유해가스를 정

화함으로써 실내를 항상 쾌적하게 유지해 준다.

스마트스트림 G3.5 GDI 엔진을 얹어 최고출력 294마력을 낸다. 이를 바탕으로 한 복합연비는 9인승을 기준으로 리터당 8.7km다.

4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최고급 시그니처 단일 트림으로 운영되며 판매가격은 가솔린 9인승 모델 6066만 원(개별소비세 비과세), 가솔린 7인승 모델 6271만 원(개별소비세 3.5%)이다. 향후 기아차는 카니발 하이리무진 디젤 7인승 및 9인승 모델과 함께 가솔린 4인승 모델도 출시할 예정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포스코에너지, 국내 첫 LNG 반출입 사업

포스코에너지는 11일 전남 광양시에 있는 LNG터미널에서 ‘천연가스 반·출입 사업개시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천연가스 반출입이란 LNG터미널을 보유한 사업자가 LNG탱크로 보세구역에 천연가스를 반입해 보세구역에 저장한 후, LNG 구매자들에게 LNG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세구역이란 수입·수출 절차를 밟지 않은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지역이다. 포

LNG터미널 ‘보세구역’ 활용 수출입 절차 없이 저장·공급

스코에너지는 현재 광양 LNG터미널에 73만kl 규모의 1~5탱크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20만kl 규모의 6탱크를 증설할 계획이다.

포스코에너지는 9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천연가스 반출입업

자’ 지위를 취득한 후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지난달 말 미쓰이물산과 ‘양사 발전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LNG 수급 및 터미널 활용도 제고’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기섭 포스코에너지 사장은 “포스코그룹의 에너지사업 재편으로 광양 LNG터미널을 포스코로부터 이관받아 터미널의 안정적인 운영과 더불어 지속적인 터미널 연계사업 발굴로 사업성을 키워왔다”며 “보세구역을 활용한 국내 최초 천연가스 반·출입 사업 개시로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제주항공 '인천 to 인천' 관광비행 승객들이 기내에서 승무원의 마술 공연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목적지 없는 비행상품 왜 조종사 자격 유지 '교육책'

일정 기간 이착륙 횟수 채워야 빈 비행기 띄우느니 티켓 판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렁에 빠진 항공사들이 '도착지 없는 비행' 상품을 계속 선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지난주까지 항공학과 관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착지 없는 비행을 10차례 진행했다. 올해 9월 처음으로 상품을 선보인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에어부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달까지 11번 추가 비행을 한다는 계획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애초 체험 비행은 2~3회에 그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반응이 좋아 프로그램을 연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부산은 지난달 30~31일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목적지 없는 비행을 했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국내 항공사 중 가장 먼저 한반도 일주 비행을 했다. 항공 관련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6회가량 목적지 없는 비행을 했다. 티웨이항공은 이달까지 항공학과 관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 비행을 13차례 시행할 예정이다. 일반인들을 타깃으로 하는 상품 출시도 검토하고 있다. 진에어는 14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국내선 관광 비행을 운영한다.

대형항공사들도 비슷한 행보를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26일까지 일반인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14·21·28일) 운항하는 관광비행 상품을 판매한다. 앞서 지난달 판매했던 상품은 공개 하루 만에 완판됐다. 대한항공은 지난주 인하공업전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 비행을 했다.

실적 측면에서 항공사들이 목적지 없는 비행을 통해 얻는 이익은 크지 않다. 방역 지침에 따라 항공기 좌석을 전부 채울 수 없는 데다 유류비, 기념품 증정 등 지출해

국내 항공사 '목적지 없는 비행' 진행 현황

대한항공	지난주 인하공전 학생과 비행
아시아나항공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반인 대상
제주항공	국내 가장 먼저 한반도 일주 비행
에어부산	연말까지 항공학과 학생과 21회 계획
진에어	14일 국내선 관광비행
티웨이항공	이달까지 항공학과 학생과 13회 진행

야 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관광비행을 도입하는 이면에는 조종사의 자격 유지를 위해 비행기를 띄울 수밖에 없는 항공사들의 속사정이 있다.

항공기 조종사가 면장을 유지하려면 일정 기간 내에 이착륙 횟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항공이 관광 비행에 활용하는 A380 기종의 경우 90일 이내 해당 기종의 이·착륙 3회 이상 등의 조건을 채워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여객 운항이 줄면서 조종사들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졌다. 일부 항공사는 시뮬레이터를 활용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빈 비행기라든가 띄워 조종사의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목적지 없는 비행을 하면 빈 비행기만 띄우는 것보다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침체한 업계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부수 효과도 기대된다.

항공사 관계자는 "목적지 없는 비행은 홍보 효과가 있다"며 "특히 '항공 덕후'들의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평소보다 낮은 가격에 프리미엄 좌석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도 인기를 끄는 요소다. 아시아나항공 관광비행 상품은 비즈니스 스위트 및 비즈니스 스마티움석이 이코노미석보다 먼저 매진됐다. 최근 흉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목적지 없는 관광 비행 때 면세품 소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주혜 기자 winjh@
한영대 기자 yeongdai@

100대 기업 상반기 투자 대비 실적 5년 만에 최저

투자 4.6조 ↑ 영업익 29% ↓
"기업, 안전자산 선호 심화"

주요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도 투자를 늘려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들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계획된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했으나, 실적이 지속해서 악화한다면 투자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지난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올해 상반기 투자액은 63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6000억 원(8.0%)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8.7% 감소한 33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투자액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39.6%(25조 원)로 나타나 반도체가 투자의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투자 규모는 △전

기·전자(22.8%) △자동차(13.5%) △화학(13.2%) 순이었으며, 작년 상반기 대비 투자 증가율 기준으로는 △통신(19.6%) △자동차(11.1%) △전기·전자(7.7%)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5세대 이동통신(5G), 자율주행, 반도체 등 코로나19 이후 유망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음식료(-48.9%), 유통(-56.7%) 등 내수업종의 투자는 급감해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희비가 엇갈렸다.

다만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투자액을 크게 밀도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액 대비 영업이익이 0.54에 불과해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주요 기업들의 올해 상반기 동안 벌어들인 돈이 투자집행액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한다면 기업의 투자 여력 약화 및 산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증

대로 주요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에 나서며 올해 상반기 현금성 자산은 50조 2000억 원 증가했다. 2017년 이후 200조 원 중반대를 유지하던 100대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올해 6월 말 기준 312조 6000억 원으로 19.2% 증가했다. 과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확보한 현금을 투자 및 차입금 상환에 사용했다면, 올해 상반기에는 오히려 차입을 통해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해졌다"며 "비록 상반기에는 기업 투자가 예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업의 투자 여력이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추 실장은 "투자가 위축되면 산업의 미래 경쟁력 훼손은 불가피하다"며 "자금이 연구·개발(R&D) 투자 등 생산적 부문에 지속해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VOREL®

- 침수·수압상승
- 항균·살균
- 피부고민
- 무독성·불순물제거
- 녹제거·염소제거

우리집 수도꼭지 안심 대책

이오나이트 필터 샤워기

 무독성

 항균, 살균

 피부고민개선

 미네랄

 불순물제거

 녹제거

 염소제거

 절수

 수압상승

유해물질부터 피부고민까지 해결! 보렐 이오나이트 필터 샤워기

① 2단계 필터시스템으로 불순물 제거
친환경 이오나이트 필터가 녹물과 불순물, 잔류염소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부유물질까지 효과적으로 제거

② 강력한 수압의 미세 살수
마이크로 플레이트에서 나오는 초강력 수압으로 부드러운 물방울이 만들어져 수압이 낮은 가정에서도 용이하게 사용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 수도배관이 노후된 집에 살고 계신 분
- 샤워 후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시는 분
-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지는 분
- 세 집 수도 상태가 걱정이신 분

③ 모공 속까지 깨끗한 샤워
피부 속 잔여 노폐물이 피부 트러블의 원인 중 하나! 미세하고 부드러운 물 입자가 피부 속 모공까지 깔끔하게 샤워

④ 30% 절수 효과
미세 살수판 효과로 동일한 시간 동안 샤워를 해도 일반 샤워기에 비해 시간당 물의 양이 30%~40% 더 절약!

이오나이트 필터 샤워기(PACKAGE)

프라임(고급형)



이오나이트 필터 샤워기 1개(필터 2개 포함), 필터 5개, 향기향 3종류 각 1개, 선용물 필터 1개
소비자가격 ~~405,600원~~ → **84,480원**

리서치(일반형)



이오나이트 필터 샤워기 1개(필터 1개 포함), 필터 2개, 향기향을 1종류 각 1개
소비자가격 ~~699,900원~~ → **55,440원**

온·오프라인 통합 최저가 **20%**

현대기아차 'R&D 협력사 테크데이' 개최

현대·기아자동차가 협력사들과 함께 상생을 통한 미래 자동차 기술 선도에 앞장선다.

현대·기아차는 11일 경기도 화성에 자리한 롤링힐스 호텔에서 연구개발본부 본부장 앨버트 비어만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 R&D 협력사 테크데이(Tech Day)'를 개최했다. 최신 정보 공유 및 각종 지원과 포상 등을 통해

협력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동반 성장을 증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다. 올해가 15회째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사들의 참여 및 행사 규모를 최소화해 진행했다. '2020 R&D 테크데이' 행사는 지난해 뛰어난 연구개발 성과를 낸 협력사에 대한 포상과 우수 신기술 사례 발표 등으로 이뤄졌다. 김준형 기자 junior@

美, 자율주행 'C-V2X' 단일표준 확실히... 국내도?

‘웨이브’ 방식보다 성능 우위에 있고 보안 면에서도 유리
이통사 “5G 기반 C-V2X 환영”...과기부도 긍정적 입장
국토교통부 “안정성 검증되지 않았다” 웨이브 방식 지지

이달 18일 미국의 이동통신 기반 차량사물·통신(C-V2X) 단일 표준 채택 여부가 확정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C-V2X가 주류로 굳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내 이동통신사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달 18일 미국은 C-V2X 단일 표준 채택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투표 안건에 근거전용무선통신(DSRC·웨이브) 방식이 전면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 C-V2X 표준 채택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차량·사물통신(V2X·Vehicle to Everything communication)은 자동차

와 모든 것을 연결하는 기술을 뜻한다. 차량량 중심에 두고, 유·무선망으로 각종 도로 정보를 제공한다. 자율주행차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의 핵심기술인데, 한국은 V2X 표준으로 웨이브 방식과 C-V2X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C-V2X는 성능 측면에서 웨이브보다 우위에 있다.

현재 국내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사업은 실증 단계로 두 개의 표준을 열어 놓은 상태다. 실증 지역별로 네트워크 채택 방식이 다르다. 그런데 실증을 넘어서 상용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표준으로 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는 미국의 선택

웨이브 방식과 C-V2X 방식 비교

웨이브		C-V2X	
와이파이 기반	개요	셀룰러 이동통신 기반, LTE와 5G 기반으로 C-V2X로 통칭	
오랜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안정성	장점	커버리지, 전송 속도 등 성능 우수	
커버리지, 확장성	단점	기투자한 웨이브 방식 매출비용 발생	
1km 미만	커버리지	수km	
0.1초 미만	지연시간	LTE-V2X는 0.1초 미만, 5G-V2X는 0.01초 미만	

에 주목하는 이유다. 웨이브 방식은 와이파이 기반이고, C-V2X는 롱텀에볼루션(LTE)과 5세대(5G) 이동통신 등 셀룰러 기반 V2X다. 국내 이동통신사는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C-V2X가 표준으로 채택되는 것을 좀 더 반기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사업성이 검증되면 제조사에 솔루션을 공급할 수도 있고, 표준 기술에 이바지하는 그 자체로 수익을 낼 수 있어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C-V2X가 표준으로 채택되면 이동통신 계열 기술 기업들

은 같은 계열의 기술이다 보니 통합이 쉽고, 기술적 배경으로 확장도 쉽다”고 설명했다.

이통사는 보안 면에도 C-V2X가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와이파이 기술은 비면허 주파수 대역을 쓰기 때문에 여러 단말이 섞일 수 있어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와이파이 기술은 개방형으로 보안에 특화된 기술은 아니다”라며 “이동통신은 개별 회선으로 쓰는 기술 특징이 있어 태생적으로 보안에 유리하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도 웨이브 방식보다 C-V2X

방식에 더 주목하고 있다. 다만 통신사와의 연관성 때문만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동통신 생태계 관점과 통합을 고려했을 때 미래 기술의 발전성이 있다고 보고, 국제적인 동향에 주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C-ITS 실증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웨이브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 그간 실증 사업 대부분이 웨이브 위주로 채택됐고, 투자가 누적돼 안정적이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C-V2X를 두고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부처 간 엇박자가 나는 상황에서 미국의 결정이 과기정통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어느 시기까지 기술 표준을 확정한다는 목표는 없지만, 18일 미국의 결정을 지켜본 뒤 조속히 부처 간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넷마블, 3분기 매출 6423억... 해외 비중 75% '최대'

넷마블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874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423억 원으로 3.6% 성장했으며 당기순이익은 925억 원으로 9.2% 늘었다.

3분기 매출 중 해외 매출은 75%로 2분기 연속 최대 기록을 이어갔다. 해외 매출은 북미와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서 출시해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일곱개의 대죄:그랜드크로스’를 중심으로 ‘마블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스’와 ‘리니지 2 레볼루션’, ‘블레이드 & 소울 레볼루션’, ‘쿠기잼’ 등이 꾸준하게 실적을 견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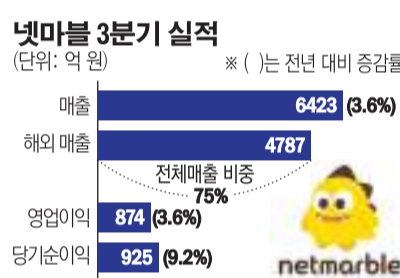
4분기의 경우 이미 출시한 ‘A3:스틸 얼라이브’와 18일 출시를 앞둔 ‘세븐나

영업익 874억... 3.6% 증가
‘일곱개의 대죄’ ‘리니지2’ 등 북미·일본 등서 꾸준한 실적
4분기 신작들도 흥행 기대감

이츠2’, 전 세계 게이머들의 기대를 받는 ‘마블 랠름 오브 챔피언스’ 등의 신작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지난 10일 172개국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정식 출시한 A3:스틸얼라이브의 기대감이 높다. 이 게임은 국내 출시 이후 애플 앱스토어 매출 2위, 구글플레이 매출 3위를 기록하면서 양대 마켓 순위 상위권에 오른 바 있다.

‘A3: 스틸얼라이브’는 지난 2002년



모바일 게임 최초의 실시간 그룹 전투 시스템 등이 특징이다. 마블 랠름 오브 챔피언스는 마블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이 팀을 이뤄 실시간 3대 3 전투를 펼치는 게임이다. 각 하우스의 일원인 ‘챔피언’은 총 6종의 영웅으로, 이용자들은 6개 캐릭터 중 선택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4분기는 자체 IP인 ‘세븐나이즈’와 자회사 카밤의 ‘마블 랠름 오브 챔피언스’ 등을 통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며 “내년은 ‘제2의 나라’, ‘세븐나이즈 레볼루션’, ‘마블 퓨처 레볼루션’ 등 신규 기대작들이 다수 포진한 만큼 글로벌 게임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블레스 언리쉬드’ PC버전 내년 상반기 글로벌 서비스

네오위즈가 콘솔 게임 ‘블레스 언리쉬드’를 PC로 옮겨 글로벌 동시 서비스에 나선다.

네오위즈는 11일 ‘라운드8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MMORPG ‘블레스 언리쉬드 PC’의 미디어 쇼케이스를 진행하고 게임 정보와 서비스 일정을 공개했다.

블레스 언리쉬드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박점술 PD는 “‘블레스 언리쉬드 PC’가 ‘블레스 온라인’ 원작과는 전혀 다른, 새롭게 개발된 게임”이라며 “콘솔 게임을 PC로 이식한 만큼 묵직하고 강력한 액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게임은 전투에 가장 중점을 두고 개발됐다. 액션의 쾌감과 콤보 조합, 이용자의 개성 등에 따라 조합되는 스킬 세트 ‘블레스’를 기반으로 한 성장이 특징이다. 언리쉬드 엔진으로 구현했으며 아름답고 넓은 오픈 월드, 강력한 몬스터, 5종의 클래스 등이 강점이다.

블레스 언리쉬드는 이날부터 CBT 사전 예약을 진행하며 내년 1월 15일부터 테스트에 돌입한다. 이후 보안을 거쳐 내년 상반기 PC플랫폼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글로벌 원블드 형태로 서비스되며 한국 자체 사이트와 스템에서 동시에 플레이할 수 있다. 서버는 북미와 유럽, 아시아, 한국·일본 서버로 나누며 어느 플랫폼으로 접속해도 전 세계 이용자들은 같은 서버 안에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 한국 이용자를 위한 한국 전용 서버도 출시된다.

조성준 기자 tiatio@



철도연이 개발 중인 최고시속 1200km의 하이퍼튜브 개념도. 사진제공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하이퍼튜브’ 시속 1019km 공력시험 성공

철도기술연구원, 항공기보다 빨라 엔진장치·시제 차량 등 개발 한창

한국판 하이퍼튜브인 ‘하이퍼튜브’가 시속 1019km 달성에 음속(1220km/h)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은 독자 개발한 축소형 튜브 공력시험장치에서 하이퍼튜브 속도시험을 해 진공상태에 가까운 0.001 기압(아진공) 수준에서 시속 1019km의 속도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철도연은 앞서 9월 아진공 상태에서 공력 주행시험을 본격화하면서 시속 714km의 속도를 기록했다. 이번 시험의 성공으로 아진공 튜브 내부에서 비행기보다 빠르게 주행하는 하이퍼튜브의 주행특성을 세계 최초로 실험으로 규명함으로써 하이퍼

튜브의 기본설계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미국이나 유럽을 다니는 국제선 항공기의 경우 800~1000km/h의 속도로 비행한다.

하이퍼튜브 공력시험장치는 17분의 1 규모로 제작됐으며, 하이퍼튜브 차량, 차량량 초고속으로 주행하게 하는 발사부, 아진공 튜브와 제동부 등으로 구성됐다.

철도연은 아진공 초고속 공력시험장치 뿐만 아니라 하이퍼튜브 차량의 엔진에 해당하는 핵심 장치인 초전도전자석과 추진 장치, 그리고 차량의 초고속 주행 안정화 장치 등 하이퍼튜브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향후 하이퍼튜브를 구현하기 위한 시제 차량을 개발하고 테스트베드를 이용한 성능 검증을 위해, 하이퍼튜브 실증 연구 사업 등을 기획 중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21번째 자성한 기업에 ‘비자·쇼피파이’

외국기업으로는 3번째... 중소기업인 해외 판로개척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국내 중소기업인을 위해 세계적 결제 기술 기업 비자(VISA)와 세계 3위 온라인 쇼핑 플랫폼 기업 쇼피파이(Shopify)가 21번째 ‘자성한 기업’으로 참여한다. 두 기업은 국내 유망 중소기업인의 해외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및 금융서비스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자성한 기업은 전통적인 1차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이 아닌,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기반), 노하우 등 강점을 미거래기업·소상공인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비자코리아 서울을지로 본사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 크리스 클락 비자 아태 총괄대표, 마크 왕 쇼피파이 동아시아 총괄대표, 변광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자성한 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온·오프라인을 연계해 4차 협약으로 진행됐으며, 알켈리 비자 회장과 할리 핀켈스테인 쇼피파이 회장 등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국내 1인 창업자, 소상공인 및 내수 중소기업 등의 온라인 수출기업 전환을 위한 해외 온라인몰 구축 사업이



마크왕(왼쪽부터) 쇼피파이 동아시아총괄(영상), 박영선 중기부 장관,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크리스클락 VISA 아태총괄(영상)이 협약서를 들어보고 있다.

추진된다. 또한 비자와 쇼피파이는 온라인 수출기업 전환을 함께 할 국내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발굴 및 협력관계로 편입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중기부가 ‘상생과 공존의 가치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성한 기업’ 시리즈 중 21번째로, 외국기업으로는 암(Arm), 스타벅스코리아에 이어 3번째다.

박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세계적 기업인 비자와 쇼피파이가 국내 중소기업인을 위한 온라인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기획하는 등 마음을 모았다는 점에서 뜻깊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재훈 기자 yes@

채권 신고 공고

당 회사는 2020년 11월 1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 되었으므로 당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당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0. 11. 12.

주식회사 골드마인소프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4길 13, 3층(역삼동, 세계빌딩)
청산인 김문수

날개 꺾인 면세점... 1년 만에 해외사업 줄줄이 정리

신라, 日 폐점... 홍콩·태국 '휴업' 롯데, 대만 이어 印尼·태국 철수 내실 다지기 주력 구조조정 나서

국내 면세점 해외 사업장 운영 현황	
신라면세점 (4개국 4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창이공항점 • 마카오 공항점 • 태국 푸켓 시내면세점 • 홍콩 첵람콕 공항점
롯데면세점 (6개국 12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광공항점 • 일본 간사이공항점, 도쿄 긴자 시내면세점 • 베트남 다낭, 나트랑캄란, 하노이노이바이 공항점 • 호주 브리즈번, 다윈, 캔버라 공항점, 멜버른 시내면세점 • 뉴질랜드 웰링턴 공항점 • 싱가포르 창이공항점

면세업계가 해외사업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는 물론 해외 사업장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만큼 부진한 해외 사업장 정리를 통해 일단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하기 위해서다.

국내 사업만으로는 고속 성장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싱가포르와 마카오 등 해외 사업을 시작한 게 불과 1년 전인데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면세점업계의 사업 방향이 180도 바뀐 셈이다. 업계에서는 “국내에 물론 해외에서도 매년 성장을 거듭하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11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최근 일본에서 사업을 중단했다. 호텔신라는 합작법인 '다카시마야 듀티프리 신라&아나'를 통해 일본 도쿄 시내면세점을 운영해 왔으나 영업을 지난달 말 종료하고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부터 임시 휴업을 이어오다 영업을 재개했으나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와 여객 수요 감소로 결국 폐점됐다.

이로써 신라면세점의 해외 사업장은 싱가포르·홍콩·태국·마카오 등 4곳이 됐다. 문제는 이들 영업장에서도 정상적인 영업을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홍콩 공항과 태국 푸켓 시내면세점은 휴업 중이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선 1·3터미널에서만 영업 중이고 2·4터미널은 휴업하고 있다. 지난해 말 단독으로 입찰해 최종사업자로 선정돼 공항 면세점 절반에 해당하는 노스사이드 권역(약 339평)에서 영업하고 있는 마카오 국제공항에서만 정상 영업을 실시하고 있다.

롯데면세점도 상황이 좋지 않긴 마찬가지다. 롯데면세점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면세점과 태국 방콕 면세점 철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7년 방콕 시내 면세점 영업을 시작했으나 현지 업체의 방해로 공항 인도장을 확보 못 해 사업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첫 해외 진출국인 인도네시아에서의 철수도 뼈아프다. 롯데면세점은 2012년 자카르타공항점, 이듬해 시내점을 추가로 설립하며 인도네시아에서 공격적인 영업을 이어왔다. 하지만 2017년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자카르타 공항점을 철수한 데 이어 올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으며 자카르타 시내면세점까지 문을 닫게 돼 인도네시

아 시장에서 '전면 철수'하게 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만에서도 사업을 철수했다. 이로써 롯데면세점의 해외 사업장은 올해 기준 6개국 12곳이 됐다. 현재 베트남, 괌 등의 매장이 휴업을 실시하고 있고 호주 일부 공항점과 일본 도쿄 긴자점, 지난해 진출한 싱가포르 창이공항점(부분 오픈)에서만 영업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다만 이마저도 적은 입출국 수 요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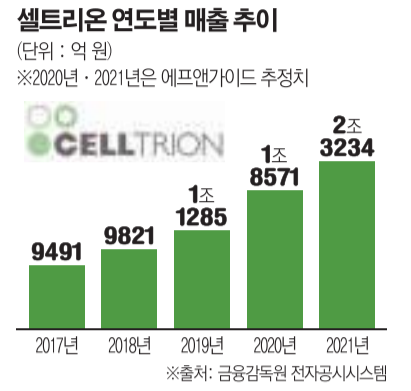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해외 사업장 추가 철수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적자생존의 상황으로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 면세업계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통계청의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면세점 매출은 올해 2월 전년 대비 36.4%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9월에도 34.9% 감소하는 등 마이너스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8개월 연속 매출 하락은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가장 최장 기간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셀트리온 '2조 클럽' 시대 여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누적실적 1.3조... 81% ↑

코로나 치료제 개발 성공편
내년 몸집 더 커질 것



셀트리온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3분기 깜짝 실적(어닝 서프라이즈) 달성에 성공하면서 올해 총 매출은 2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 기대감도 쩌트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연결기준 올해 3분기 누적 실적은 1조3500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1%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한 셀트리온은 올해 더욱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3개 분기 만에 전년도 매출을 돌파했다. 2019년 제약업계 매출 1위 유한양행이 누적 1조1280억 원, 2위 GC녹십자가 1조870억 원을 각각 기록해 이변이 없는 한 셀트리온은 올해 왕좌를 차지할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3분기 시장 추정치(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렸다. 매출은 5488억 원, 영업이익은 2453억 원으로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연구 개발비가 증가했지만, 수익성 높은 바이오메터 '팜시마SC'와 테바의 편두통치료제 '아조비' 위탁생산(CMO) 매출이 늘면서 비용을 상쇄했다.

기대 이상의 호실적에 셀트리온이 올해 몸집을 어디까지 불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셀트리온의 올해 매출 컨센서스는 1조8571억 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실적 발표 직전(1조7561억 원)보다 5.8% 증가한 숫자다. 추정기관들은 셀트리온이 1조8000억~1조9000억 원의 연매출 달성에 무난히 성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한 곳도 있다. 이명선 신영증권 연구원은 "4분기는 셀트리온USA의 항원진단키트

공급계약, 테바 CMO 매출, 다케다 아시아태평양(APAC) 사업 일부 인수에 따른 매출이 인식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2020년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78% 성장한 2조87억 원, 영업이익은 120% 증가한 8307억 원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만일 셀트리온이 이를 충족한다면 2014년 유한양행이 국내 제약사 최초로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한지 6년 만에 '2조 클럽' 시대를 열게 된다.

업계는 셀트리온이 2021년에는 안정적으로 연매출 2조 원을 달성하는 회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력하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파이프라인을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사업과 다케다의 케미컬 사업 인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항체치료제는 개발에 성공할 경우 회사의 강력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서진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역시 "항체치료제는 셀트리온의 매출을 많이 끌어올릴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 큰폭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항체치료제를 국내에는 원가에 판매하고, 해외에는 마진을 취하되 경쟁사보다 가격을 낮게 책정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임상 1상에서 경증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를 확인했으며, 연말까지 임상 2상을 마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상용화 시점에 맞춰 대량 생산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면서 "현재 10배치(batch) 생산에 들어갔으며, 이는 9만 명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유혜은 기자 euna@



현대백화점 "따뜻한 크리스마스"

현대백화점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무역센터점 정문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전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역센터점에 들어서는 10m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진저맨 쿠키들이 오븐 속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콘셉트로 제작됐다. 또 현대백화점은 압구정본점 등 현대백화점 전국 15개 점포 외벽 및 매장 내부 공간을 산타클로스, 진저맨들이 쿠키와 사탕 등 달콤한 디저트를 배달하는 모습으로 꾸며 고객들에게 즐거운 연말 분위기를 느끼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이마트 끌고 SSG닷컴 밀고" 이마트 3분기 웃었다

영업익 1512억... 30.1%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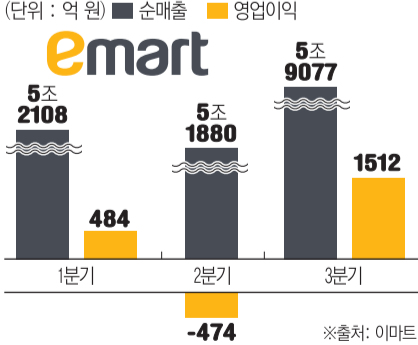
이마트가 3분기 턴어라운드 성공했다. 기존 점포 성장과 SSG닷컴과 이마트 등 자회사 수익성 개선이 주효했다.

이마트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5조 9077억 원, 영업이익 1512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6.7%, 영업이익은 30.1% 증가했다. 별도기준 매출과 영업이익도 4조2069억 원, 1401억 원을 기록하며 각각 전년 대비 7.5%, 11.1% 늘었다.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이마트 점포를 비롯해 트레이더스, 전문점, 연결 자회사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크게 늘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이마트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1% 증가했는데, 성장세로 전환한 것은

이마트 실적 추이(연결 기준)



2017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진행한 그로서리 강화, 고객 중심 매장 확대 등 기존점 경쟁력 강화 전략이 적중했다는 분석이다.

성장세를 이어오던 트레이더스는 3분기도 고성장을 유지했다. 전문점은 효율화 작업을 통해 적자 폭을 크게 줄이며 수익성 확보에 청신호를 켰다. 트레이더스 매

출은 전년 대비 27.9% 증가했고, 영업이익 전년 대비 83.2% 늘어난 134억 원을 기록했다.

전문점은 3분기 영업손실 43억 원을 기록했지만 적자 폭은 전년(영업손실 204억 원)보다 161억 원 줄었다. 특히 전문점의 핵심 사업인 노브랜드는 올해 1·2분기 흑자에 이어 3분기도 67억 원 흑자를 달성하며 3개 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이마트 사업부뿐만 아니라 SSG닷컴, 이마트24, 신세계TV쇼핑 등 이마트 연결 자회사도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다.

SSG닷컴은 전년 대비 영업손실을 204억 원 줄인 31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로도 100억 원 이상 적자 폭을 줄여 향후 수익성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CJ제일제당 "김장김치 예약 받아요"

'비비고 포기김치 김장 에디션'

CJ제일제당은 식품전문물 'CJ더마켓'에서 두 차례에 걸쳐 비비고 김치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김장철 기획 제품으로 '비비고 포기김치 김장 에디션 10kg'을 판매하며, 1차 예약은 이날부터 17일까지, 2차는 18일부터 24일까지이다. 사전예약은 선착순 1500명 한정으로 받고, 접수 순서에 따라 각각 25일과 다음달 1일에 차례로 배송한다.

'비비고 포기김치 김장 에디션'은 직접 김치를 담거나 부모님으로부터 김치를 받아서 먹는 3040세대를 위한 기획 제품으로, 소비자가 7만9800원이다. 사전예약을 이용하면 할인된 가격인 6만9800원에 살

수 있다. 김장 에디션 구매자 중 추첨을 통해 신라스테이 숙박권, 비비고 석박지 등을 제공한다.

겨울철 별미김치 신제품도 출시했다. '비비고 석박지(900g, 1만3900원)'는 제철 무와 액젓을 사용했다. 내년 2월까지 겨울 시즌 한정판으로 판매하며, 비비고 설렁탕 등 비비고 국물요리와 동시구매 할인 프로모션을 펼칠 계획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김치가 가장 맛있는 제철을 맞아 소비자들의 김장 고민을 덜고 새로운 별미김치를 내놓아 다양성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비비고 김치는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을 사로잡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포장김치 시장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손해액 확정 난항... 투자자에 반환까지 상당기간 소요”

금감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실사 결과 발표

NH투자, 실사 결과보다 예상 회수율 9%P 이상 높게 잡아
한국투자, 투자금 90% 조건없이 선지급... 10%는 회수 후에
판매사 “배상금액, 자산 회수율 아닌 책임소재 가린 뒤 결정”

5000억 원대의 투자금이 묶인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이 최소 7%대에 그칠 것이라는 회계 실사 결과가 나왔다. 건설돈이 401억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예상 회수율보다 9%포인트(P) 이상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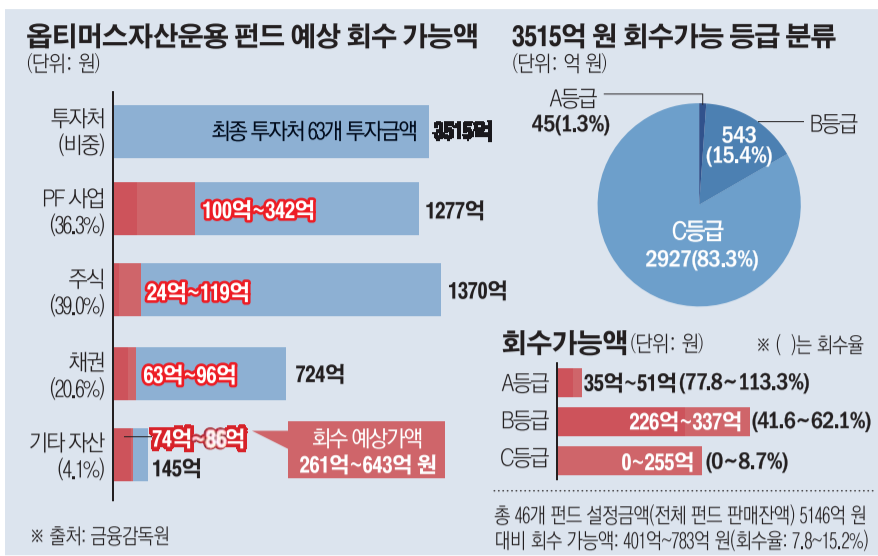
◇금감원 “손해액 확정까지 시간 필요”=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사·회계법인 등과 협의체를 꾸려 펀드 기준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 효과적으로 펀드 자산을 환수하기 위해 펀드 이관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라임 사태는 KB증권, 대신증권 등 다수의 판매사가 라임 펀드의 가교 운용사

(배드뱅크)를 설립해 책임을 분담했다. 그러나 옵티머스 펀드는 투자금의 80%를 NH투자증권에서 판매한 만큼 NH투자증권이 주도적으로 자산 회수에 나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분쟁 조정을 마무리하고 투자자에게 자금이 지급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펀드 자산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점 등 때문에 손해액을 확정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판매사들 역시 최종적인 배상금액은 자산 회수율이 아닌 금감원 민원 조정결과 또는 소송으로 책임 소재를 가린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라임 무역금융 펀드의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졌



지만, 옵티머스 펀드는 아직 판매사가 판매 단계에서 부실을 인지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판매사 “자산 회수에 최선을...”=옵티머스 펀드의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금융당국이 밝힌 옵티머스 자산 회수율이 실제 고객이 받게 될 배상금액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객자산 회수 테스트포스팀(TFT)이 자체 추산한 기준

이 경우 일반 투자자들의 배상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또 회계법인은 아파트 재개발사업, 임대주택사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등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회수 가치를 0으로 추산했지만, NH투자증권은 회사 자체의 투자은행(IB) 업무 역량과 민·형사상 소송, 협상을 통해 추가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

또 다른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현재까지 투자금의 90%를 ‘조건 없이’ 선지급하기로 한 상황이다.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펀드 자산이 회수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모펀드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금감원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실제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던 올해 6월까지도 일부 판매사는 옵티머스 펀드를 계속 팔아왔다. 금감원이 신속하게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 규모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옵티머스뿐만 아니라 라임 사태까지 연루됐거나 연루가 의심되는 금감원 직원도 여러 명이다. 감독이 부실했던 것을 넘어서 사기에 직접 가담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손영기 기자 eomli@

삼성그룹주,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펄펄’

그룹 상장사 시총 581조8500억
이건희 회장 별세 후 20조 늘어
‘삼성SDI’ 26%, 가장 많이 올라
‘호텔신라’ 22% ‘삼바’ 18% ↑

지난달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룹 계열 상장사들의 주가가 덩달아 뛰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그룹 상장사의 총 시가총액은 581조 8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견희 회장 별세 직전 561조 8200억 원 보다 20조 원 가량 늘었다.

국내 증시 시총 30위 안에 삼성그룹주는 삼성전자를 포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 등이 포진돼 있다.

이 기간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삼성SDI로 25.56%나 주가가 급증했다. 시총도 29조 1900억 원에서 36조 6500억 원으로 7조 4600억 원이 늘었다. 이 회사는 지배구조 개편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지만 최

이견희 회장 별세 전후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의 주가 추이 (단위: 원)

종목명	10월 23일 종가	11월 10일 종가	변동률
삼성SDI	424,500	533,000	25.56%
호텔신라	64,400	78,300	21.58%
삼성바이오로직스	636,000	752,000	18.24%
삼성물산	104,000	116,500	12.02%
삼성중공업	5,200	5,880	13.08%
삼성생명	63,100	66,800	5.86%
삼성전자	53,300	55,500	4.13%
삼성에스디에스	172,500	171,000	-0.87%
삼성전자	60,200	60,200	-

※ 출처: 한국거래소

근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확실시되며 주요 공약인 ‘블루 웨이브’의 수혜주로 꼽히며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호텔신라 우선주가 21.58%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8.24% 올라 뒤를 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1년 사이 주가가 급등하며 삼성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실타 마련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본격 생산될 경우 실적

개선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더해지며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의 핵심 계열사로 꼽히는 삼성물산도 12.02% 오르며 강세를 기록 중이다. 이 회사의 주가는 이 회장의 별세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 이견희 기대감이 작용하며 하루만에 13.46%가 급등했다. 하지만 이후 횡보를 거듭하다 이달 들어 다시 상승 재미를 갖추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안에서 삼성물산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인 삼성생명의 주가도 5.86% 오르며 지수 상승률을 앞질렀다.

삼성물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분을 17.3% 보유하고 있고 이견희 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20.8% 소유했다.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을 각각 8.8%, 5.0%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을 19.3% 보유하면서 삼성전자를 간접적으로도 지배하고 있어 이들 기업은 지배구조 개편시 가장 중요한 기업으로 꼽힌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거래소 “테마주 DB 이달 중 구축... 모니터링 강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1일 사이버 시장감시 정보 통합 관리를 통해 테마주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 시황급변 조화공시 요구 대상 종목 등 특이 종목의 온라인상 이상 게시물 내용을 분석해 핵심 키워드를 일자별, 종목별로 분류해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키워드를 활용해 호가, 시세, 공시 등을 추가 분석해 테마주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사전 예방조치 및 신속 심의 의뢰 등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예방조치는 ‘구두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의 4단계를 거치지만

테마주는 ‘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의 2단계로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문관여종목도 신속히 지정·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온라인 상에서 각종 공문 등으로 주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면 기업에 통보해 적극 해명을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투자자의 안내가 발동되면 키워드 관련 정량요건을 적용해 대상 종목을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

관련 키워드DB는 이달 중 구축을 완료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유해림 기자 wiseforest@

대신증권, 국가공인 개인정보보호 ‘ISMS-P’ 획득

대신증권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신뢰성과 보안시스템 안정성을 인정받아 금융보안원이 주관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ISMS-P 인증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 금융권 최고 수준의 인증 제도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수립, 관리, 법규 및 지침 준수, 운영까지

일련의 활동이 국가공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2014년 정보통신망서비스의 안정성을 인정받아 ISMS 인증을 획득한 바 있는 대신증권은 이번 ISMS-P 인증으로 한층 강화된 보안 수준을 인정받게 되었다. 금융보안원의 ISMS-P 인증을 받은 기업은 금융투자업계에서 대신증권이 유일하다.

김우람 기자 hura@

“고마워요 바이든”... ‘배터리 삼형제’ 시총 100兆 눈앞

LG화학 49조... ‘시총 3위’ 탈환
삼성SDI 35조·SK이노베 14조
‘2차전지’ 호황 전망 속 주가 高高

LG화학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2차 전지)업체 ‘빅3’의 시총액이 1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급진화하고,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시장 확대로 2차 전지 시장이 연평균 38%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3대 배터리 기업인 LG화학(48조8499억원)과 삼성SDI(35조2074억원), SK이노베이션

(14조3322억원)의 합산 시가총액은 98조 3895 원이다.

국내 배터리 3대 업체 중 시가총액 절반을 차지하는 LG화학은 대장주로 꼽힌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후 국내 증시 첫날인 9일 LG화학은 73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9월 4일(74만3000원) 이후 두 달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약 3개월 만에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자리에 오른 것이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3위 자리를 놓고 엇치락뒤치락하고 있다.

LG화학은 이미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도 고속 성장 중이었는데, 바이든의 당선으로 집중 조명되고 있다. 100만 원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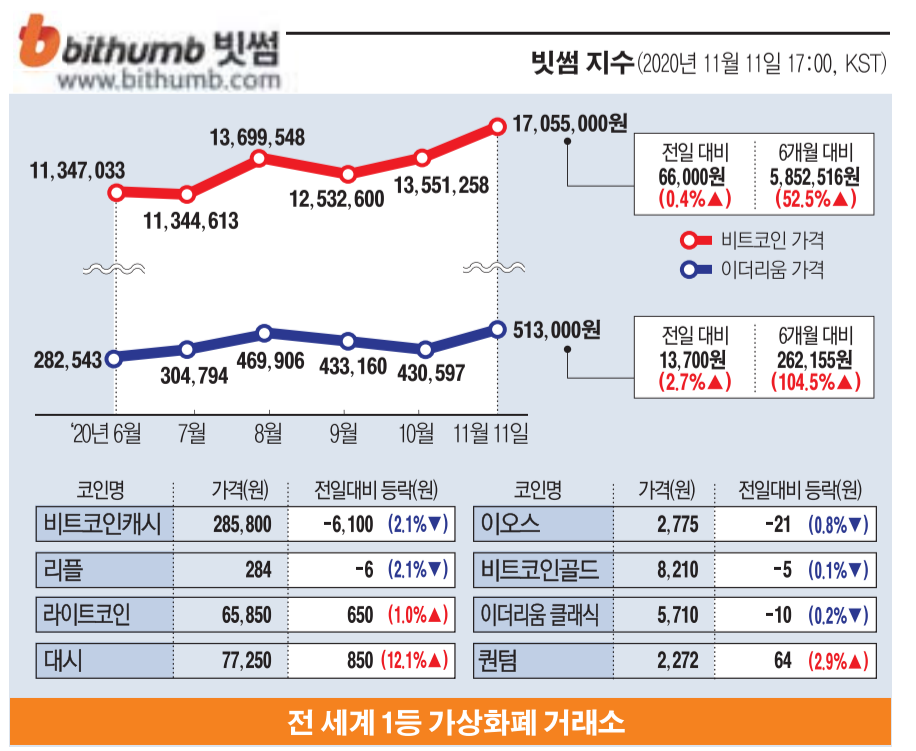
상의 목표주가를 제시한 증권사가 5곳이나 될 정도다.

게다가 3분기 영업이익이 9021억 원의 분기 최대 실적 달성했는데, 이중 전지 부문이 1688억 원으로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게 평가된다.

삼성SDI는 올해 4분기부터 중대형 전지 부문의 실적이 대폭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동차전지가 전분기 대비 40% 이상, ESS는 50% 이상 증가하면서 중대형 전지에서 처음으로 이익을 달성할 전망이다.

다소 실적 펀더멘탈이 낮은 SK이노베이션은 향후 배터리 신규 공장이 빠르게 안정화 될 경우 재평가가 기대된다.

김우람 기자 hura@



서울 외곽 소형 아파트도 '10억 시대'

강북·은평 등 59㎡ 매매가 평균 임대차법 시행後 전세대란 가중 "차라리 집 사자" 실수요자 몰려 정부는 "주택 매매시장 안정세"

최근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은평구 등 외곽 지역의 소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10억 원대에 이르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가중된 전세난으로 전셋값이 치솟자,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몰리며 매매값을 밀어 올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주택 매매시장이 안정세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임대차법 강행으로 전셋값과 매매값이 모두 오르는 악순환을 불렀다는 비판이 거세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업체 아실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8단지래미안' 전용면적 59.99㎡형은 최근 10억 원에 매매 거래됐다. 동일 평형의 직전 거래가인 9억5000만 원에서 1억 원가량 치솟은 가격이다. 이 단지는 5월부터 10월까지 8억~9억 원대 매매값을 보이다가 단숨에 10억 원대에 진입했다. 현재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값)도 10억 원 선으로 형성돼 있다.

12월 입주를 앞둔 성북구 장위동 '꿈의숲 아이파크' 전용 59.1㎡형의 입주권은 지난달 9억9500만 원에 팔렸다. 앞서 전용 59.49㎡형 입주권도 9억75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

최근 서울 외곽 전용면적 59㎡ 아파트 실거래가

지역	단지명	가격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8단지래미안	10억 원
성북구 장위동	꿈의숲아이파크	9억9500만 원
은평구 녹번동	힐스테이트녹번	9억7500만 원
구로구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9억4000만 원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3차	9억3500만 원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해링턴플레이스	8억5000만 원

다.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입주 시기가 임박하면서 찾는 사람이 많다보니 현재 59㎡ 기준 10억 원 아래로는 매물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분양기를 보면 조합원 물량은 3억 원 중반대, 일반분양은 4억 원 중반대였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외곽의 소형 아파트값 급등세는 은평구와 강북구 등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은평구 녹번동 '힐스테이트녹번' 전용 59.93㎡형의 경우 8월과 9월에 각각 9억 7500만 원, 9억6000만 원에 나갔다. 호가는 10억 원을 웃돈다.

구로구 신도림동 '디큐브시티'와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3차' 전용 59㎡형도 각각 9억4000만 원과 9억3500만 원에 나가며 10억 원대를 앞두고 있다.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해링턴플레이스' 전용 59.36㎡형은 지난달 22일 8억5000만 원에 팔렸다. 직전 거래인 9월 29일 8억 원에서 한 달 새 5000만 원 뺀 것이다.

현재 호가는 9억 원대를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 나타난 전세시장 불안은 일정부분 인정하면서도, 매매시장은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주장해 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 매매시장에 대해 "보합세 내지는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서 "매매시장의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매물 폭귀와 전셋값 급등세가 이어지자, '차라리 집을 사자'고 눈을 돌린 실수요층이 몰리면서 매매값을 밀어 올리는 중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던 서울 외곽의 소형 아파트 위주로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강북구와 은평구는 올해 들어 이달 첫째 주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이 각각 1.81%, 1.14% 상승했다. 지난해 동기 강북구는 0.28%, 은평구는 -0.19%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 기간 성북구도 -0.13%에서 0.78%로 뛰면서 올해 서울 평균(0.60%)을 웃돌았다. 구로구는 2.40%의 상승률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 금천구도 1.24% 올랐다.

국회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저가 소형 아파트마저 집값이 올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하며 "(공급 위주로) 주거정책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현대ENG, 국내 첫 'AI 미장 로봇' 개발

공사비 절감·충간소음 저감 가능

현대엔지니어링이 국내 최초로 콘크리트 바닥면의 평탄화 작업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AI미장로봇'을 개발하고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과 로보블럭시스템이 공동개발한 AI 미장로봇은 각 4개의 미장날이 장착된 2개의 모터를 회전시켜 콘크리트가 타설된 바닥면을 고르게 하는 장비다.

기존 바닥 미장 기계 대비 경량화를 통해 활용성을 대폭 높였으며, 전기모터를 도입해 기존 휘발유 모터를 사용하는 유사 설비보다 소음이 적고 친환경적이다.

회사 측은 AI 미장로봇을 활용할 경우 시공 품질과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바닥 미장 불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행 사고나 가공정밀도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는 세대 콘크리트면과 바닥제의 들뜸 현상으로 인한 하자 예방과 충간소음 저감도 가능하다.

문선영 기자 moon@

'과천 르센토 데시앙' 가점 최고 80점·최저 65점 청약시장 '고가점자만의 잔치'

주택시장 불안 가중...공급 확대 시급

뜨거운 청약 열기를 보인 경기도 과천시 식정보타운에서 만점에 가까운 고가점자들이 이를 연속 무더기로 쏟아냈다. 일각에선 폭발적인 청약 수요와 고가점화가 기존 주택시장을 더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1일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과천시식정보타운 '르센토 데시앙(조감도)'의 당첨 최저 가점은 65점이다. 최고 가점은 80점으로 84A㎡(이하 전용면적)형에서 나왔다. 가점제로만 당락을 가리는 84㎡의 평균 당첨가점은 △84A㎡형 해당지역 70.75점 △84A㎡형 기타경기 75.44점 △84A㎡형 기타지역 74.32점 △84B㎡형 해당지역 69점 △84B㎡형 기타경기 73.31점 △84B㎡형 기타지역 71.71점이었다. 84B㎡형 해당지역을 제외하면 모든 주택형이 70점을 넘어선다.

전날 당첨자를 발표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에서 가점 만점(84점) 통장이 나온 데 이어 이날에도 고가점자가 속출한 것이다. 84점은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80점 역시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 무주택기간 13~14년 미만(28점) 수준의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다. 청약가점제에서 70, 80점대는 4인 가족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이들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약 2400만 원대로 주변 단지와의 시세 차의 이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과천 청약 단지 3곳의 1순위에 48만 명의



과천시식정보타운 분양단지 청약경쟁률 및 당첨 가점

단지명	청약 경쟁률	당첨 최저점	당첨 최고점
르센토 데시앙	470 : 1	65	80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416 : 1	58	84

※출처: 청약홈

청약자가 줄을 선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장에선 폭발적인 청약 경쟁과 고가점화가 오히려 주택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윤지혜 부동산114 수석 연구원은 "로또분양 기대감에 청약대기 수요가 전세시장이 머물면서 임대차 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가점이 낮은 수요자는 청약 대신 기존 주택시장으로 눈을 돌려 자금 부담이 적은 9억 원 이하 주택 매입에 나설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채권입찰제 등 청약 광풍을 가라앉힌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결국 공급확대가 답이라는 주장이 많다. 윤 연구원은 "특공 기회를 넓히면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드어 아랫돌 빼 윗돌 끼는 격"이라며 "4인 가족이 10~12년 인박의 무주택기간으로 쌓은 점수로도 충분히 당첨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만큼 공급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1월호 발매

COVER STORY
Feel환경 시대 必환경 생활

PART1. 숫자로 읽는 기후 위기 지구가 보내는 SOS

PART2. 앞뽕달뽕 환경용어카드로 보는 환경 이슈

PART3. 친환경 모담노드 재대로 해라 제대로 지구를 살린다

PART4. 생활용 아이디어 인사이클로 업그레이드, 일상속 미학

PART5. 건강한 한 해 100점짜리 건강을 위한 일

PART6. 차세대 친환경 먹거리 친환경을 잊은 경제가 보인다

신라보가 만난 사람

다들 뉴질랜드 일자로 향해서 마려 양친을 공꾼다
모스트 코로나 시대의 김수영 양친구생량 해법

"저게 7억의 인구 중 저만의 유일한 재미가 있습니다"
박사를 만드는 게 허미진 님자 조종성 이사장의 브라보타임

니조차도 감동 못할 거야, 그 누가 감동해주려?
이인우 작사가

더불어 숲 어디서든 휘둘리지 않으면 거기가 도솔천

고수 열전 사건의 시작은 귀농 반대투쟁이었지만

시골에서 단박이나 편편을 운영하는 이가 많지만 순항하는 사례가 드물다. 이름 모르지 않았던 이정형 회장님도담담컨대 대표 역시 심오한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가이이 현선을 짓겠다고 기세를 돋우던 남편이 결국 입을 내고야 말았다. 그후는 심의와 병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오영, 이게 뭐야? 편편 사업이 빅손조롭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김해영의 느린 여행

'고한 18번가의 가격' 강원도 정선 고한읍에서 인적이 가장 뜸했다는 고한8리 골목에 들었다.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든 걸까. 골목의 변화는 놀라웠다. 이곳 주민들은 마을이 호열이라는 자부심으로 매일 잠 알 화단을 단정한다. 마을은 나날이 예뻐진다.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 앞으로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지 기대된다.

엄마가 엄마에게

심혈관 질환과 치매 예방에 좋은 등푸른생선 레시피

영사·영작 알아보기

알뜰 없는 거리의 화가, 박크시

'15의 원파리 그림이 질려나간 사연'

삼삼오오 50+ 커뮤니티

아웃부터 환경까지, 우리를 잇는 한맘

자투리 천도 총총하게 이으면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원단으로 재탄생한다. 그렇게 한 맘 한 맘 바느질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바래진 물건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사랑한맘' 커뮤니티다.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1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기획사 코바나컨텐츠>

檢, 윤석열 부인 과세자료 확보... 수사 본격화

秋 “대권선호 1위 尹 사퇴하고 정치하라”

압수수색 막히자 세무당국 통해 전시회 협찬 의혹 진위 여부 주목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전시회 협찬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윤석열 대망론’이 커지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주목받은 이번 의혹 사건의 진위 여부가 가려질지 주목된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이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무 당국에 제시하고 코바나컨텐츠의 과세자료를 넘겨받았다.

김 씨에 대한 성급한 강제수사를 시도하다 법원에 제지당한 검찰이 회사 과세자료 확보 등 기초조사부터 차근차근 진행해왔

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김 씨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김 씨가 운영하는 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수사·재판 중인 기업들의 후원이 늘어난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 협찬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의 침해가 중대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 시도가 윤 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무리한 시도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에

반발한 압수수색 시도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5일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에 대한 사건을 4일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한 날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고 형사고발 된 사안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수사팀이 원전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해당 수사에 착수해 검찰총장 사

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이후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또다시 격화하고 있다.

추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 수사 우려가 있다”며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검찰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총장에 대해 “특활비를 주머니 속으로 넣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해 법무부·대검 특활비에 대한 법사위 현장검증이 이뤄지기도 했다.

다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3시간에 걸쳐 자료를 들여다봤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보수언론 사주 회동 엄중 판단”



추미애<사진> 법무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대권후보1위로 등극했으니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했다.

추 장관은 1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윤 총장이) 대권후보1위로 등극했는데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5일 원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산업부 공무원 2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했다. 또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담당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추 장관은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미래 비전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정책을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이라며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이 검찰의 손에 돌아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보수 언론 사주와 만났다는 더불어민주당 황윤하 의원의 질의에 “사실이라면 검찰공무원 행동 강령과 검사 윤리에 위배되기에 지휘 감독권자로서 좀 더 엄중하게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황 의원이 “(윤 총장이) 임기제를 방해 삼아 수사권을 무기로 정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임기제는 검찰사무에 대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검찰을 무대로 정치를 하라는 정치무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를 하려면 사퇴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하는 국민적인 지적이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PC 은닉’ 김경록, 2심서 정경심 증인 신청

변호인 “진술 상반돼 신문 필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하드디스크(HDD) 등 증거를 숨겨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증권사 프라이빗뱅크(PB) 김경록(38)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정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8-1부(재판장 김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관련해 피고인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정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다음 달 자신의 형사사건 선고를 앞둔 것을 거론하며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러나 변호인은 “진술이 너무 상반될 뿐 아니라 비상식적이라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씨 측이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한 뒤 정 교수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순히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 1심의 형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의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과 동양대 PC 은닉 범죄 사이에는 동일성이 없어 포괄범죄가 아닌 실제적 경합범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 검찰에서는 증거를 제시하고 추궁하자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을 진술했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먼저 자백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 등을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종용 기자 deep@



철도 대표·상담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코레일네트웍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사 대표소에 파업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는 코레일네트웍스 노조의 파업으로 주요 기차역의 대표 업무 등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기업성과에 날개를 다는 효과적 영업

관계지향적 영업

영업성공을 위한 고(高)성과 노하우 터득하기

“영업직에 막 입문하는 사람들과 현직에 있는 영업사원, 더 나은 실적을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의 영업 관리자 분, 그리고 영업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위한 도서”

박영사 신간도서

기업성과에 날개를 다는 효과적 영업

관계지향적 영업

박영사

저자약력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마케팅학회 부회장
한국마케팅관리학회 부회장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곽민준

한국세일즈연구원 원장
(주)이음헬스케어 대표이사
진 김정문알로에 대표

신A5판 / 280P
정가 14,000원

www.pybook.co.kr **박영사**

‘코로나 확산’ 불안한 고3 “수능 전까지 집콕”

학교 감염 증가세에 고3 교실 비상 원격수업 전환·가정학습 신청 늘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약 3주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학교 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고등학교가 고3에 한해 원격 수업을 시행하는가 하면 감염을 피해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학생도 늘고 있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순차적 등교가 시작된 5월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코로나19 학생 확진자는 누적 793명이다. 교직원은 147명이다. 최근 5일간 발생한 학생 확진자는 전국에서 총 22명, 교직원은 3명이다.

늘어나는 학교 감염으로 고3 등교 일정은 학교마다 제각각인 상황이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 시행 일주일 전인 이달 26일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를 수능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 서초구의 서문여고는 고3 원격수업을 이달 16일부터 10일 앞당기기

로 했다. 서문여고 관계자는 “학교 학생 중에 확진자가 나와 이 같은 조치를 했다”며 “나머지 1~2학년은 교육당국의 밀집도를 맞추기 위해 등교 수업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지역의 서초고 역시 이달부터 수능이 끝난 뒤인 12월 4일까지 고3은 모두 원격 수업을 하도록 했다. 서초고 관계자는 “등교수업을 시행해도 수업을 들을 고3 학생이 많지 않다”며 “특히 감염병 확산 우려로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반면 선뜻 원격 수업 전환 결정을 내리지 못한 곳도 있다. 전북 완산고 관계자는 “교육당국이 1주일 전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라고 한 지침을 최대한 따를 예정”이라며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임의대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경우 대입 지도나 학습 관리, 감염병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등교 방침을 고수하는 학교에선 원격 수업 대신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가정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교외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을 신청하면 학교에 따라 2~4주가량 등교하지 않아도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수칙’이 붙어 있는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수능 준비를 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 대화고 관계자는 “고3 학생 절반 이상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했다. 다만 등교수업을 시행하는 주에도 등교 여부는 학생들이 자체 판단한다”며 “수능이나 대학별 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위험을 줄이

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밀집도 기준 ‘3분의 2 등교’와 방역 수칙 등을 잘 지킨다면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 일정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정시선발 인원 대폭 증가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가 올해 고3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선발 인원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입시전문기업 진학사에 따르면 서울 권역 대학 중 정시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대학은 이화여대다. 2020학년도 963명을 정시 모집했으나 2021학년도에는 169명 늘어난 1132명을 뽑는다.

이화여대 정시 선발 인원이 많이 늘어난 곳은 지난해 77명을 모집한 사범대학이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 대비 2배 이상인 158명을 모집한다.

연세대(서울)도 정시 선발 인원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난다.

2020학년도 1136명에서 2021학년도 1284명으로 148명 늘었다.

다만 이 중 54명은 고른기회 전형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일반 학생이 체감하는 증가 폭은 94명이다. 국어국문학과, 경영학과, 전기전자공학부 등의 모집인원은 소폭 감소하기도 한다.

연세대는 올해 삼성전자와 협약에 의해 신설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인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신입생을 정원 외로 10명 선발한다. 장학금, 취업 후 진로, 연구 활동 지원 등의 혜택이 있어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대(서울) 정시 선발 인원은 지난해 670명에서 올해 786명으로 116명 증가한다.

올해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모집단위는 전기전자공학부다. 지난해 19명에서 올해 31명을 뽑는다.

더불어 작년 대비 신소재공학부 9명, 컴퓨터학과 9명, 기계공학부 8명, 화공생명공학과 8명이 증가하는 등 자연계열 내 선호도 높은 모집단위의 선발 인원이 늘었다.

손현경 기자 son89@

정시는 전략싸움... 3년치 경쟁률·성적·모집인원 꼼꼼히 따져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시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대입 전략을 짜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입시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대학에서 발표하는 입시 결과를 검토할 때 각 대학이 공개하는 수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매년 대학별 정시 선발 방법이 다르고 그해 특성에 따라 수험생의 지원 심리 또한 변하기 때문이다.

11일 입시전문가들은 “대학별 입시 결과를 전년 자료만 살펴 볼 게 아니라 3년치에 걸쳐 검토하는 게 낫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 정시선발 방법 매년 바뀌어 최소 2년치라도 패턴 분석 필요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성적과 경쟁률이 계속 오르는 추세를 보인다면 해당 대학이나 모집단위에 대한 학생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다만 전년에만 성적과 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면 올해 입시 결과가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매년 변하는 모집인원도 유심히 살펴야 한다. 최근 모집인원을 변화시키는 환경적 요인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시·정시 선발 비율 등이다. 수시모집에서 다수 대

학에 합격한 학생 사례도 최종 정시 선발 인원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대학은 이런 경우로 인해 미등록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 애초 정시 선발 계획보다 더 많은 학생을 선발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모집인원 변화는 정시 입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며 “모집인원이 적을 경우 성적에 자신 없는 학생이 지원을 꺼리게 돼 입시 결과 성적도 낮게 형성된다. 반대로 인원이 많을 경우 성적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며 “모집인원이 전년보다 적으면 보수적으로, 많다면 조금 여유 있게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만약 3개년 대학 입시 결과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최소 2개년 자료라도 확인하는 게 좋다. 자료 내용 중 합격자 성적 확인이 어렵다면 경쟁률만 살펴도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대학에서 발표하는 입시 결과 자료는 분명 공신력이 있고 신뢰성도 높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년도의 수능 난이도, 응시자들의 성적 분포 등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올해는 또 다른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올해 수능 응시자들의 성적 분포와 지원 패턴 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전년도 입시 결과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바이로봇
APT Shield 2.0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바이로봇 7.0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을지로 238 (여말민당)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BIG BANG®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 뱅

고반발 클럽 설계 기술과 경량화 기술은 이미 타사와 **초격차의 기술 우위** 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st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우드 + 3rd Shot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100yd 증가

PAR 5 3rd shot 까지 합계

뱅크골프클럽으로 100yd 더나가도록 세계적인 프로들이 도와드립니다!

클럽구매 선택에서부터 클럽스펙수정, 필드 레슨까지

최대의 비거리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골퍼에게 **최적화된 스펙의 클럽**이 필요합니다
레슨실력과 첨단 과학적 프로그램으로 스윙분석을 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골프 클럽 지식까지 겸비한 세계 BEST 100프로가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김주미 (LPGA 1승, KLPGA 3승, KLPGA대상/최우수선수상/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SBS골프 방송), 김혜윤(KLPGA 5승, SBS골프아카데미방송, KLPGA K10클럽 수상), 박소영 (KLPGA 3승, 국가대표 코치), 송보배 (LPGA1승, JLPGA 2승, KLPGA 5승, LET 1승, KLPGA대상/상금왕/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방송), 송경서 (JTBC골프 해설위원/라이브레슨 방송), 양제윤 (KLPGA 2승, KLPGA 대상), 이병윤 (JTBC골프 라이브레슨, 수원여대 골프교수), 이지영 (LPGA 1승, KLPGA 2승), 이현 (JTBC골프 라이브레슨, 경찰대/경성대 골프교수), 염동훈 (KPGA 최우수지도자상, 주니어선수/투어프로 코치 선호도1위), 장활영 (SBS골프/JTBC골프 중계, 한국골프대/가천대 골프교수), 조영란 (KLPGA 2승), 최우리 (KLPGA 1승, KLPGA 최우수선수상, SBS골프/MBC 방송), 허석호 (KPGA 2승, JGTO 8승, KPGA대상, 골프다이제스트 선정 베스트 교습가 1위, SBS골프아카데미 방송), 문현희 (KLPGA 2승, 인하대 스포츠심리학 박사수료, SBS골프 및 JTBC레슨 방송), 이정연 (KLPGA 1승, KLPGA 신인상, 우수선수상, 한국골프대학 교수, SBS골프 레슨방송, LPGA 9H 최저타수 28타), 이승호 (KPGA 6승, JGTO 신인상), 김나리 (JLPGA 2승), 신준 (미 PGA Certified Professional, JTBC골프 레슨 방송, JTBC골프 해설위원)



세계 어느 기업도 도전하지 않고 따라 하기도 힘든
최적화 기술을 실현 시키고 있습니다

- 드라이버를 100m밖에 못 보내는 분도 쉽게 스윙 할 수 있는 타사 대비 30% 더 가벼운 무게의 클럽부터 400m장타자가 사용하는 무거운 클럽까지
- 아주 부드러운 R6강도의 샤프트로 된 클럽부터 3X강도의 강한 샤프트로 된 클럽까지

999,000가지 스펙중에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클럽을
PGA 정상급 프로가 사용하는 클럽을 제작해주는 시스템 그 이상으로 VIP 고객의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최적화된 뱅골프 클럽으로 100대 프로의 필드 레슨 신청 접수중 |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있는 프로 피터, 골프 클럽 전문가 모집중

BIG BANG®

(주)뱅크골프코리아

대표전화 1544-80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 1층

www.banggolf.co.kr



“비대면 시대 푸드테크 비즈니스 선도할 것”

달콤서 ‘로봇카페’ 분사...지성원 비트코퍼레이션 대표

다날 엔지니어 출신으로 달콤 대표 거쳐 비트서 세번째 도전 “앱 주문 호평, 무인카페 가능성 봤죠”...연내 100호점 목표

“비대면 시대, 로봇카페 비트(b:eat)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비트코퍼레이션은 비트를 통해 글로벌 푸드테크 비즈니스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지성원(사진) 비트코퍼레이션 대표이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본사에서 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에 집중해 비대면 시대 유통시장의 미래를 제시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달콤은 로봇카페 비트 사업부를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고, 소비자거래(B2C) 영역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비트코퍼레이션 신입대표는 비트 개발 초기부터 담당해 온 지성원 대표가 맡게 됐다.

지 대표는 다날에 오랜 기간 근무한 다날맨이다. 엔지니어 출신인 그는 2006년 다날에 입사해 다날엔터테인먼트에서 콘텐츠 사업을 맡는 등 여러 업무를 두루 거쳤다. 2011년 달콤(dal.komm) 론칭부터

는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며 달콤의 대표이사로도 활동했다.

지 대표는 “당시만 해도 커피전문점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으며 “이에 달콤의 지향점을 외식이 아닌 콘텐츠로 잡고, 엔터테인먼트적 시각으로 사업을 풀어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날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살려 드라마, 음악, 엔터테인먼트, VR 등 다양한 제휴 마케팅을 통해 달콤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렸다. 그 결과 가맹점 확대, 글로벌 시장 진출, 매출 확대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단기간에 성사시키는 데 성공했다.

특히 앱으로 커피 주문이 가능한 달콤의 테이블오더가 호평을 받자, 지 대표는 식품과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푸드테크는 신성장산업 분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경제가 커졌고, 푸드테크도 새



로이 주목받을 분야로 꼽히고 있다.

지 대표는 “앱을 통한 주문이 바리스타의 빠른 응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향후 무인카페의 상용화 및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날의 우수한 결제서비스와 달콤의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 노하우가 만난 로봇카페를 통해 획일화된 국내 카페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

으로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지 대표는 끊임없는 개발 및 테스트 과정을 거치며 2018년 로봇카페 비트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2019년에는 KT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지능형 CCTV, 5G 기술 등이 담긴 2.0버전을 내놓으며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비트를 선보였다.

현재 비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시대의 도래가 맞물리면서 빠른 속도로 국내 시장에 보급되고 있다. SK텔레콤, KT, 우아한형제들, 야놀자를 비롯, 각 대학가를 포함해 90여 곳의 매장을 확보한 상태이다. 올해 7월에는 아파트 단지인 ‘래미안 장위 퍼스트 하이’에 입점,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로봇카페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 대표는 “올해 내 100개 매장을 목표로 남은 하반기에도 꾸준히 사업전략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기능을 담은 비트3.0을 선보이는 등 기술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로 퍼진 비대면 시대에 맞춰 비트를 세계 시장으로 진출시킴으로써 푸드테크 비즈니스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종민 기자 kjm@**

김상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취임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신입 이사장에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에 취임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9일 운영위원회에서 김상곤 이사장을 제 22대 이사장 최종후보로 선출했고,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12일자로 취임한다. 임기는 2020년 11월 12일부터 2023년 11월 11일까지 3년간이다.

김상곤 신입 이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이베스트, IB 대표 봉원석 부사장

이베스트투자증권은 12일 신입 IB사업부 대표에 봉원석 부사장이 취임한다고 11일 밝혔다.



봉 부사장은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을 졸업하고 LG투자증권 자산유동화팀, 부동산 금융팀장을 거쳐 미래에셋대우 CRO 및 IB2부문 대표를 역임했다. 현대자산운용 고문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봉 부사장은 국내 PF 1세대로 불리며 부동산 IB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힌다. 미래에셋대우 재임 시절 서초구 한인마을 사업이나 청량리 미주상가 개발 같은 굵직한 딜을 성사시켰으며, PF와 자문 분야 실적 상승을 견인한 경험이 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메쉬코리아, 이연경 CMO 선임

IT 기반의 종합 물류 브랜드부릉(VROONG)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가 마케팅 조직을 확대하고 이연경 전 아주호텔앤리조트 상무를 최고마케팅책임자(CMO)에 신규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메쉬코리아는 IT와 영업 중심의 역량을 마케팅과 브랜딩 등으로 확대 강화하고, IT와 물류가 결합된 새로운 인프라기업으로서 활동을 다각도로 펼치기 위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본부’와 이를 총괄할 CMO직을 신설했다.

이연경 CMO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연세대학교 광고홍보학과(석사)를 졸업했으며, 2002년 아우디코리아 창립멤버로 입사해 독보적인 역량과 성과로 최연소 임원으로 선임된 바 있다.

최영희 기자 che@

11월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켈러 방울토마토 생산·가공 박인호 ‘자연터’ 대표 선정



스마트팜 농업기술을 활용해 켈러 방울토마토를 생산하고 가공제품 개발, 체험활동까지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자연터 박인호(사진) 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11월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선정됐다.

자연터가 생산하는 켈러 방울토마토는 색깔마다 맛과 영양소가 다르다. 박 대표는 이 방울토마토 생산을 위해 스마트팜 농업기법을 도입했다. 또 지역 전문농가와 의 산지 조직화를 통해 연간 367톤을 생산한다.

가공제품은 기존 열·동결건조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근적외선 건조 방식을 도입,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해 건강 브랜드 입지를 넓혔다. 국내에서는 이마트와 공급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판로를 확보했고, 온라인을 비롯해 서양인 입맛에 맞는 토마토소스를 개발해 지난해 6만5000달러를 수출하기도 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미셸 박 스틸도 당선, 한국계 美 하원의원 3명

민주 2·공화 1 ‘역대 최다’...영 김도 현재 1위 당선 유력

미국 연방 하원에 한국계 의원이 역대 최다인 3명 입성했다. 아직 개표 중인 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또 한 명의 한국계 의원이 있어 이번 선거에서 한국계 의원은 4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미셸 박 스틸(한국 이름 박은주·사진) 후보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48선거구에서 현역인 민주당 할리 루다 의원을 꺾고 승리했다. 스틸 당선인은 트위터에 “이번 승리는 힘들게 싸워 얻은 것”이라며 “여러분의 지지를 받아 더욱 겸손해지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대통령선거에서 매년 민주당 후보

를 지지해줘 민주당 뒷받침으로 꼽히지만, 48선거구는 보수 성향 유권자가 많은 오렌지카운티에 속해 있어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스틸 당선인은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후 페퍼다인 대학을 졸업하고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위원에 당선되며 선출직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번 하원의원 선거까지 내리 5전 전승하며 ‘선거의 여왕’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선거에서 스틸 당선인은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내려진 마스크 착용의



무 명령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루다 의원은 해당 주장이 비과학적이고 위협하다고 공격했지만, 오렌지카운티는 마스크 착용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많아 스틸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릭랜드 후보가 워싱턴주 10선거구에서 당선됐고, 민주당 소속 앤디 김 뉴저지 하원 의원은 3선거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로써 한국계 당선인은 모두 3명이 됐다. 여기에 캘리포니아주 39선거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공화당 영 김 후보까지 당선되면 이미 역대 최다인 당선인 수는 4명까지 늘게 된다. **최혜림 기자 rog@**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전영애 교수 ‘삼성행복대상’

삼성생명공익재단이 11월 2020 삼성행복대상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수상자는 △여성선도상 김명자(76·왼쪽 사진) 서울국제포럼 회장 △여성성장소장 전영애(69·오른쪽)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명예교수 △가족화목상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1호 △청소년상 임연희(16, 대광여고)·박민영(16, 강원고)·김운섭(17, 수도전기공업고)·김하늘(19, 대구과학대 1)·박미각(20, 서울대 2) 학생 등 8명(단체 1곳 포함)이다. 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0만 원(청소년상 각 500만 원)이 수여된다.

여성선도상을 받은 김명자 회장은 한국 과학기술계의 대표 지식인으로서 숙명여대, KAIST 초빙특훈교수, 환경부 장관, 17대 국회의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최초의 여성 회장 등을 거쳤다. 학계, 정부, 국회, 과학기술계, NGO 등에서 50년간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높게 평가받았다. 여성성장소장을 수상한 전영애 교수는 괴테, 쉐란, 독일 분단문학 등 독일



근·현대 문학을 광범위하게 연구해 다수의 논문과 60여 권의 서적을 출간하며 한국의 독일문학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괴테문학에 대한 연구 성과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독일 바이마르 괴테학회로부터 인정받아 아시아 여성 최초로 ‘괴테 금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부음

미디어 아티스트 양만기 덕성여대 교수

미디어 아티스트 양만기 덕성여대 석좌교수가 10일 별세했다. 향년 55세. 양 교수는 이날 밤과주출판단지 인근에서 운전 중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1965년 충남 금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홍익대학교와 같은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서양화에서 출발해 디지털미디어, 컴퓨터, 영상, 애니메이션, 홀로그램,

레이저아트, 사운드아트 등 장르를 넘나들며 대규모 작업을 해왔다. 서울역 맞은편 서울스퀘어 건물 전면을 활용한 미디어캔버스에도 르네 마그리트의 ‘우산을 쓴 사람’을 재해석한 고인의 미디어아트 영상 작품 ‘미메시스-스케이프’가 설치됐다.

고인은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도 작품 활동에 매진해 뉴미디어 아트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1996년 제15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 2008년 제8회 하중현미술상 작가상을 받았다.

빈소는 일산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3일 오전 5시 30분이다. 031-910-7114.

▲하귀순(권사) 씨 별세, 차미래(뉴시스 국제부 편집위원·전 세계일보 논설위원) 씨 모친상, 정영주(전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사장) 씨 장모상 = 9일, 미국 세인트 루크 사우스 병원, 발인 14일 오전 9시 30분(현지시간), 010-4257-4591

▲조순실 씨 별세, 김의수(NH농협은행 보산역지점장) 씨 모친상 = 11일, 서울 노원구 원자력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3일 오전 9시, 02-970-2114

▲장경호 씨 별세, 장영수(전북 장수군수) 씨 부친상 = 11일,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3일 오전 8시, 063-351-8050

▲김순남 씨 별세, 박인규(개암이엔티 대표이사) 씨 장모상, 이명희(세계일보 기자)·연실(전북일보 기자) 씨 조모상, 김정엽(조선일보 기자)·공현철(새전북신문 기자)씨 처조모상 = 11일, 경남 창원 영락원 장례식장 302호, 발인 13일 오전 6시, 055-292-4444

▲이동백 씨 별세, 이혁(대한전기안전 기술공사 부장)·엽(운수업)·순·현씨 부친상, 권용일(안동대학교 음대 교수)·백승현(동양생명 홍보팀장) 씨 장인상, 홍경월(의왕 태바영수학원장) 씨 시부상 = 11일, 경북 안동의료원 장례식장 2분향실, 발인 13일, 054-850-6440

인사

- ◆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 △공공혁신심의관 김성진
-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겸 수자원 부문이사 이한구 △기획부문이사 김갑식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무국인사팀장 전호진 △재무회계팀장 원민재
- ◆한화갤러리아 ◇승진 △전무 박용범 △상무 배준연 △상무부 윤지호 홍철기
- ◆한화건설 ◇승진 △전무 윤용삼 △상무 박세영·박철광·유진상 △상무부 김장복·윤상현·이상봉·전창수·현종훈
- ◆한화도시개발 ◇승진 △전무 김인성 △상무부 이동훈
- ◆토요경제신문 △편집국장 최성필

자본시장 속으로



박 동 흠 회계사

투자자가 꼭 체크해야 할 재무제표 주석사항

주석사항에는 재무제표 계정과목의 명세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해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여러 정보가 많다. 대기업 재무제표의 경우 주석사항만 10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양이 방대하다. 첫 페이지부터 차례차례 읽지 말고 재무제표의 중요 계정과목 숫자와 주석사항 간에 서로 참고(reference)하면서 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주석사항도 재무제표 일부를 구성한다. 오히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보다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이 담고 있다. 주석사항에는 재무제표 계정과목의 명세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해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여러 정보가 많다. 대기업 재무제표의 경우 주석사항만 10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양이 방대하다. 첫 페이지부터 차례차례 읽지 말고 재무제표의 중요 계정과목 숫자와 주석사항 간에 서로 참고(reference)하면서 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예를 들어 건축 내·외장재 기업인 KCC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 총액 대비 약 27%인 2조6000억 원어치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온다. 이 회사의 주주는 금융자산이 주식인지, 채권인지, 만약 주식이라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할 것이다. 그럴 때 주석사항을 활용하면 된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 주석사항을 보면 금융자산의 98%가 상장기업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보유한 종목은 삼성물산, 한국조선해양 등이며 주식 취득 가격 대비 약 1조 원 이상의 평가차익을

거두었다. 재무제표 주석사항의 백미는 단연 '특수관계자 거래'이다. 우리는 이 주석사항을 통해 기업이 어떻게 횡령하는지 또는 대주주 일가가 세운 회사를 통해 얼마나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지 알 수 있다. 횡령 및 배임은 주로 무자본 기업사냥꾼들이 인수한 소규모의 상장기업에서 많이 발생한다. 사채로 기업을 인수하기 때문에 이들 사냥꾼들은 회사에 입성해서 값을 돈을 마련할 방법부터 찾는다. 회사 내부에 있는 돈을 그냥 갖고 가면 안 되니까 티 나지 않게 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특수관계자인 계열사나 자신의 회사를 여러 개 만들고 거기에 자금을 보내는 것이다. 계열사 설립 자본금, 대여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에 있는 돈을 자연스럽게 흘러 보내고 거기에 가서 임원 급여나 분식 회계 등을 통해 자금을 인출한다. 소규모 상장기업에서 횡령할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을까? 상장기업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자본조달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데 있다. 그동안 이들 기업 중심으로 전환사채(CB)를 많이 발행했고 여러 사

모펀드에서 인수를 잘 해줬다.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면 사채권자는 주식으로 전환해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회사는 들어온 자금을 상환 의무 없이 마음껏 쓸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조달받은 자금을 사업에 쓰지 않고 횡령에 이용해서 회사의 주주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다.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서 상장폐지 대상이 된 다수의 상장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공통점이 있다. 최대주주, 임원진, 회사명이 빈번하게 바뀌었고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고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돈이 외부로 나간다는 점이다. 잘 모르는 중소·중견기업을 투자하기에 앞서 이런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중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일감 몰아주기이다. 만약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다면 일감 몰아주기를 의심해야 한다. 회사의 거래 구조 사이에 최대주주가 만든 회사가 개입해서 이익을 가져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런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은데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지원행위 제재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SPC삼립의 주석사항

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를 보면 그들 간에 복잡한 매출, 매입 거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대주주가 대부분 지분을 보유한 사니를 비롯해 여러 회사에서 매입해오고 다시 특수관계자인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 등에 판매하는 식이다.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수익과 비용 간의 간극이 벌어져야 하는데 만약 특수관계자들의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한 목적이라면 회사는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팔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SPC삼립의 영업이익률은 2%에 불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주석사항을 통해 특수관계자 간 매출, 매입 거래가 빈번하고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낮다면 일감 몰아주기를 의심해야 한다. 결국,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거래구조의 중간에 있는 상장기업의 주주이다. 재무제표를 통해 전년도 대비 실적이 좋아졌는지 재무구조는 안정적인지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하겠지만 이렇게 주석사항에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이 담겨 있으니 투자에 앞서 반드시 체크해서 믿을 만한 기업인지를 판단하기 바란다.

CEO 칼럼

유 희 숙 1492피앤씨에드 대표 한국제도전중소기업협회장



실패 경험이 성공의 데이터가 될 때

'의견은 접어두고 데이터로 말하라.' 구글의 표어 중의 하나다.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의 저자인 알베르토 사보이아는 성공할 수 있는 창업자를 가려내는 시장조사법의 전문가로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사업에 꼭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참신한 아이디어, 자본과 실행력 모두를 갖추고도 90% 이상 실패한다고 말하며, 처음부터 '될 만한 놈'을 찾아야 시장을 이긴다고 역설한다.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제품은 바로 망한다는 것. 사업 실패의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시장을 몰랐던 이유가 가장 큰 실패 원인이라고 보는 까닭이다. 그는 시장을 알아내는 최적의 방법으로 '프리토타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프리토타입'이란 특정 제품을 만들기 전에 이 제품이 정말 시장에서 원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소비자 테스트이다. '내가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나'를 시험해보는 프로토타입(시

제품)과 반대로, '프리도 타이핑'은 '내가 이 제품을 정말 만들어야 하나'를 답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다. 비록 실패했다라도 한 번의 사업 경험이 자산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시장에 대한 경험이 바로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경험이 경험으로만 끝나지 않고, 데이터라는 결과물로 분석되고 새로운 사업 수정의 바탕이 될 수 있을 때 실패의 데이터는 재창업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글도 최소 5개 이상 실패작을 거친 후 하나의 성공 모델이 안착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니 관점을 달리해 보면, 실패의 쓴 경험이야말로 시장에 대한 가장 중요한 데이터의 확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초기 재창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 실패 데이터의 분석과 이에 따른 보완 아닐까. 재창업 정책이 정부 주도로 시작된 지 10년째인데, 어떤 기업이 재창업에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사례 수준을 웃도는 데이터 분석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순환되지 못하는 제도적 걸림돌의 데이터가 얼마나 방대한지를 수치화하고, 재창업을 지원해준 수많은 업종의 시장과 기업가의 불균형에 따른 실패한 원인을 데이터로 축적해 자산화시켜야 한다. 제도전 수기와 시장에 뺨한 한두 사람의 사례만 강조할 게 아니라 데이터 구축으로 연결돼야 하는 이유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시 재가지원펀드가 3000억 원 조성되었으나, 제도전성공패키지나 재창업 자금을 받은 재창업 기업들이 후속 연계로 재가지원펀드를 받은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초기 재창업자금을 받은 기업가가 후속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성공 확률이 높아질지 데이터로 추출해봐야 할 것이다. 재창업 기업가에게 가장 부족한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사업 단계별 검증 및 객관화 과정이 중요하지, 공동으로 협의할 사무 공간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 초기 재창업자에게 R&D 예산을 더 늘려야 하는지, 네트워크 사업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지를 데이터로 검증해야 한다.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소상공인 데이터 기반 경영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소상공인의 매출 등 정보를 수집, 분석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년 예산 중 상권분석 예산을 33억 원 책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다. 다만 재창업 기업가들이나 재창업 환경에 대한 데이터 구축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실패 사례가 알려지는 걸 기본적으로 꺼리며, 혹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멘토링과 코칭이 병행된 상태에서 추출하는 정보가 가장 효과적이다. 자신의 실패 경험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기 위한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자세 또한 재창업 지원 시 중요 심사 항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시대는 창업의 적기이니, 전문가를 믿지 말고 데이터로 승부하라"고 조언한 알베르토 사보이아의 말처럼 '돈보다 데이터'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 그레이스 켈리 명언 "나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는 그저 아름다운 한 여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미국의 영화배우이자 모나코의 왕비. '이창' '갈채' 등에서 기품 있고 우아한 미모와 연기로 인기를 끌었다. 모나코 왕 레니에 3세와 결혼했다. 운전 중 갑작스런 발작으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숨을 거뒀다. 오늘은 그녀의 생일. 1929-1982.
- ☆ 고사성어 / 해어화(解語花) '말을 알아듣는 꽃'으로 양귀비 같은 미인을 뜻한다. 당(唐)나라 현종(玄宗)과 양귀비(楊貴妃)가 장안(長安) 태액지(太液池)의 눈이 부실 정도인 연꽃을 관람했다. 옆에 앉은 양귀비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었던 현종이 주위의 공녀를 돌아보며 한 말. "여기 있는 연꽃도 해어화보다는 아름답지 않구나." 양귀비를 두고 한 말이었다.
- ☆ 시사상식 / 섬리(Summary) 언론 매체들이 쏟아내는 다양한 뉴스를 사용자 기호에 맞게 요약해 보여주는 맞춤형 뉴스 요약 앱.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의 스크린 안에 뉴스가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이용해 400~800자 정도로 순식간에 자동으로 요약해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영계 한자어 '연계(鸞鷲)'가 변한 말이다.
- ☆ 유머 / 기구한 인생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만수는 몸이 좋지 않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투자세미나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본 만수는 즉각 대시했다. "저... 이래봐도 제가... 투병 중인 아버지가 몇 년 안에 돌아가시면 그 많은 재산을 다 물려받을 사람이거든요." 아가씨는 만수에게 명함을 달라고 했다. 3개월 뒤 그 아가씨는 만수의 새엄마가 되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고인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나요?" "뭐 그렇진 않고요, 재계의 상징적인 분이라 조문했죠." 이 말을 남기곤 대기 중인 고급 세단을 타고 자리를 뜬다. 고(故) 이견희 삼성전자 회장의 빈소를 찾은 정·관계 인사 대부분이 그랬다. 유족들은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겠다고 정중히 조문을 거절했지만, 빈소에는 전·현직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고인은 물론 유족과도 직접적인 인연이 없는 이들이 많았다. 한때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정치인은 견재함을 과시하듯 자신의 사람을 좌우로 대동해 빈소를 찾았다. 어떤 이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 일장 연설을 늘어놓았고,

한 광역시장은 빈소 사진을 촬영해 SNS에 공개하기까지 했다. 그야말로 '불청객'이 따로 없었다. 정작 고인과 관계가 깊은 삼성 임원, 기업인들은 말을 아끼거나 애통함이 담긴 짧은 말만을 남긴 채 빈소를 떠났다.

유족들은 그들의 남편이자 아버지를 조용히 기리고 싶어 했지만, 누군가에게 빈소는 그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훌륭한 '무대'였다. 사실 불청객은 또 있었다. 고백하건대 나 역시 유족의 조용한 작별을 방해한 불

청객이다. 유족들의 동선을 쫓고, 그들의 슬퍼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바빴다. '불청객'이라 칭한 인사들이 '귀에 박히는' 말을 남기면 내심 좋아하며 기사에 옮겼다. 고인의 죽음을 기록하는 건 분명 필요했다. 재계를 대표하는 인물에게 더욱 그랬다. 하지만 일부 보도는 윤리적이지 않았다고 본다. 아직 미성년자인 이 부회장의 사인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됐고, 신변잡기식 기사도 쏟아졌다. 고인의 운구차가 지나가는 길목에 국화꽃을 들고 서서 조용히 애도하는 삼성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진정한 추모란 무엇일까. 모든 '불청객'이 고민해볼 일이다.

기자수첩



유창욱 산업부/woogi@

장례식장의 불청객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논설실 (02)799-2669	정치경제부 (02)799-2663	사회경제부 (02)799-2612	국제경제부 (02)799-6741	대표전화 (02)799-2600
자본시장부 (02)799-2648	금융부 (02)799-2665	부동산부 (02)799-2637	산업부 (02)799-2644	팩스 (02)784-1003
IT중소기업부 (02)799-2646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뉴스룸부 (02)799-2664	사진팀 (02)799-6745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안병익의
유러피언 드림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② 바이든 취임 후 대서양 관계

2차 대전 이후 '민주주의·시장경제' 가치 함께한 미국과 유럽

트럼프가 훼손한 파트너십 복원 나선다

“서구를 확장하고 업그레이드해야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미국 민주당의 카터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21세기에 전개되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을 전망하며 미국 지도부에 이렇게 조언했다.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나라들을 '서구(The West)'라 규정한 그는 미국이 가치 공동체인 서구를 확장하고 동맹관계 등도 업그레이드할 것을 주문했다. 국제정치의 큰 판을 짜는 지정학 대가의 소중한 조언이다. 하지만 2017년 1월 취임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유럽연합(EU)과 통상분쟁을 유발했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없애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세계무역기구(WTO)를 사실상 기능 정지시켰고 기존 국제 규범의 구속을 받지 않고 트럼프가 원하는 양자의 틀로 해결해왔다.

내년 1월에 취임할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와 동맹을 중시한다. 그는 “미국을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다”며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의 복귀를 선언했다. 우리가 보통 '서구'라 하면 미국과 '유럽'을 연상한다. 대서양을 맞대고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연계는 '대서양 관계'로 불리며 2차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 핵심축의 하나였다. 바이든 취임 후 트럼프가 상당 부분 파괴한 대서양 관계가 어느 정도 복원되고 양자 간 갈등이 풀릴 수 있을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2차대전 후 전개된 양자관계에서 해답을 찾아보자.

美, 유럽통합 핵심 역할 한 '유럽 세력'

2차대전 후 서유럽 국가들은 통합을 시작했다. 민족주의의 고장이던 유럽이 두 번의 '내전'인 양자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후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서유럽 국가들은 국가주권을 일부 양보하여 유럽의 건설에 돌입했다. 불구대전의 원수와 같았던 독일과 프랑스 간의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전략물자인 석탄과 철강의 공동관리부터 시작된 통합이 점차 경제 분야와 정치·외교 분야까지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압도적인 역외국가로 역사적인 요인 때문에 '유럽 세력'이 되었다.

1949년 4월에 창설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가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은 이전까지 외국에 군을 상시 주둔한 예가 없었다. 하지만 세계의 공산화를 목표로 하는 소련이라는 주적 앞에서 서유럽은 장기판의 줄과 같았다. 서유럽의 안보 보장 없이 미국의 안보도 없는 셈이었다. 나토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이스메이경은 “미국을 유럽에 불러들이고, 러시아를 유럽에서 쫓아내고, 독일의 힘을 빼는 것”을 나토의 목표라 규정했다. 미국은 나토라는 집단안보체제를 만들어 서유럽의 안보

를 보장했고 서유럽이 통합해야 소련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며 유럽의 통합을 격려하고 지속적으로 지지해왔다.

냉전 후 美·EU간 양자관계 제도화

1989년 11월 9일 자정쯤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다. 냉전의 상징이던 장벽의 붕괴로 기존의 안보질서가 급변할 것을 직감한 미국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나토의 틀 안에서 독일 통일 과정을 지지하면서 유럽연합(당시는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ies, EC)과의 관계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했고 성사됐다.

'신대서양 관계 어젠다(New Transatlantic Agenda: NTA, 1995년 말 서명)'는 환경과 테러리즘, 국제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에 미국과 EU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세계 무역의 확대와 긴밀한 경제관계의 촉진, 문화 및 교육 분야에서 양

하며 미국과 태평양 국가들이 체결한 파트너십의 모델로 대서양 관계를 지적했다.

그렇지만 대서양 관계의 경우 안보는 아직도 일방적이다. 미국이 나토 예산 3분의 2를 부담하고 있어 '유럽'은 여전히 안보를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프랑스와 함께 유럽의 군사강국이던 영국이 EU에서 탈퇴함에 따라 EU도 자체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해 왔으나 아직도 목표와 현실 간의 괴리가 크다. EU 회원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나토 회원국의 합의)하는 나토 회원국은 그리스와 폴란드, 발트 3국 등에 불과하다.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 독일은 1.38% 정도이다. 이 문제로 트럼프처럼 공개적으로 독일을 모욕하지는 않겠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EU 회원국들에 앞으로 계속해서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압력을 넣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훼손한 대서양 관계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복원이 예상된다. 보통 신정부가 들어서면 최소 6개월 정도 정책검토(policy review) 과정을 거친다. 미국이 지난해 말에 무력화한 WTO 상소심의 제 기능 찾기도 이런 절차를 거쳐 이뤄질 듯하다. 또 유럽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합의에 이른 이란의 비핵화 협정에도 미국은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대중국 정책에서는 갈등 요인이 남아 있다.

美中 패권경쟁서 공동전선 불가피

민주당이나 공화당을 막론하고 미국의 대중국 강경정책은 초당적인 합의가 돼 있다. 새로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는 EU와 협의해 중국에 국제 규범의 수용을 요구하는 식으로 공동전선을 펼 듯하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후 미국, 유럽과 같은 거대시장에 수출을 늘려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나 중국 기업 인수는 아직도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있다.

EU는 지난해 중국을 '체제적 경쟁자'로 규정했고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 제한적인 협력만 가능하다고 본다. 미국의 대중국 강경정책에 공감하지만 EU는 그래도 미국과 차별되는 봉쇄와 포용을 적절히 조화시킨 독자적인 중국 정책을 시행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냉전시기 공동의 주적인 소련에 맞서 미국과 EU는 협력을 지속할 수 있었다. 21세기 중국의 부상이라는 더 어렵고 큰 도전 앞에서 양자는 협력을 강화하겠지만 구조적인 갈등 요인은 상존할 것이다.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서양에는 높은 파도가 휘몰아쳤다. 이제 파도는 당분간만이라도 좀 잠잠해질 듯하다. 팻캐스트 '안팎의 유로톡' 제작·진행자, '하룻밤에 읽는 영국서' 저자.



2018년 7월 25일 백악관에서 양자회담을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장클로드 융커 당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조 바이든의 미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과 유럽 간의 대서양 관계에도 어느 정도 훈풍이 예상된다. 워싱턴/EPA연합뉴스

자 간의 간극을 메울 것을 명시했다. 그리고 1년에 2회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고위그룹도 신설했다. 4년 전에 체결된 대서양 관계 선언에 좀 더 뼈대를 붙였다.

이처럼 양자는 탈냉전 시기에 복잡한 국제사회의 공동이슈를 논의하고 협의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2차대전 후 유럽이 미국의 후원을 받던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양자가 거의 대등한 국제 정치경제의 행위자로서 협력하게 됐다. 유럽통합이 지속되면서 유럽이 국제정치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물론 냉전이 붕괴된 후 국제사회의 역할관계도 변했다. 유럽에서는 소련이라는 주적의 위협이 상당히 사라지게 되었고 소련의 압제에 시달리던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복귀하게 됐다. 통합 초기 6개국에 불과했던 유럽연합은 계속해 회원국을 늘려 현재 27개국이다. 비록 영국이 탈퇴했지만 EU는 아직도 인구 4억5000만 명 정도의 세계 최대 단일시장이다. 경제 규모에서는 미국을 앞서게 되었고 국제정치에서 이념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양자의 구조적인 갈등 요인은 커졌다.

美, 나토 예산 % 부담...안보는 일방적

70년이 넘는 양자 관계의 역사 속에서 대서양 관계는 하나의 역할모델이 되었다. 오바마 행정부 때 국무장관을 지낸 힐러리 클린턴은 '아시아로의 복귀'를 선언

사설

바닥없는 고용 추락, 기업정책은 역주행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42만1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부터 8개월 연속 줄었고 4월(-47만6000명)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8월 동안 취업자가 줄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충격을 받은 9월보다 고용상황이 더 나빠진 것이다. 9월에는 취업자가 39만2000명 감소했다. 10월부터 고용이 회복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도 빛나지 않았다. 9월에는 취업자가 39만2000명 감소했다. 10월부터 고용이 회복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도 빛나지 않았다. 9월에는 취업자가 39만2000명 감소했다. 10월부터 고용이 회복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도 빛나지 않았다.

실업자는 102만8000명으로 9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었다. 실업률 또한 3.7%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10월 기준으로 2000년 10월(3.7%)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은 13.2%, 청년층 체감실업률도 24.4%에 이르렀다.

취업자는 코로나19 타격이 큰 숙박·음식점업(-22만7000명), 도·소매업(-18만8000명), 교육서비스업(-10만3000명) 등에서 많이 줄었다. 제조업(-9만8000명)의 감소폭도 컸다.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반면 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12만3000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10만5000명), 사업시설관리 및 지

원서비스(6만2000명) 등에서 크게 늘었는데 재정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가 많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만 37만 5000명 증가했다. 이 또한 세금을 쏟아부은 단기적 공공일자리 효과의 크다. 하지만 경제활동의 주력인 청년층(15~29세)이 25만 명 줄어든 것을 비롯, 30대(-24만 명), 40대(-19만2000명), 50대(-11만4000명) 모두 대폭 감소했다.

고용시장이 바닥없이 추락하는 양상이다. 취업자수, 실업률, 일자리를 찾지 못해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사실상 실업상태인 일시휴직자 등 모든 고용지표가 최악이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가 경제를 강타하면서 생산·소비·수출·투자 등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오고 있는 탓이 물론 크다.

그러나 우리 고용시장은 코로나 이전부터 가라앉은 추세였다. 거미줄 같은 규제에 발목잡혀 기업활동이 쇠퇴하고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한 것이 고용침체의 근본 원인이다. 이 같은 위기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최우선 과제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끊임없이 '기업규제 3법' '노동 3법'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만 쏟아내는 역주행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자리가 줄고 국민소득이 감소하면서 생산·소비가 뒷걸음쳐 경기와 고용이 더 가라앉은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

한 킷



하늘길 언제쯤 열릴까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업계가 생존을 위해 '관광비행' 상품을 내놓고 있다.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릴 수는 없지만, 여행에 대한 갈증을 풀 수 있는 '목적지 없는 비행'에 크게 호응하고 있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설치된 리쿠팡 해변 홍보 영상 앞을 마스크를 쓴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SAMSUNG



김치플러스로 비스포크 라이프를 완성하다

초정온 메탈클링으로 어떤 김치도 최적으로 지켜주고
원하는 컬러와 디자인으로 인터리어는 더 예뻐지고
가족의 크기에 맞춰 사이즈까지, 비스포크 김치플러스로 모두 맞추다

비스포크를 더 완벽하게

BESPOKE 김치플러스



상온 김치숙성 모드 | 저염김치 모드 | 구워김치 모드

가전을 나답게.